

(www.jbe.go.kr)

2014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유공자 공무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 대 상 : 2014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유공자 12명, 교육전문직 3명
- 기 간 : 2015. 1. 18.(일) ~ 1. 23.(금)
- 방문국 : 호주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목 차

I. 연수개요 및 성과	1
II. 오주의 학교 체육교육과정 사례연구	4
1. 들어가며	5
2. 호주와 한국의 체육교육과정 비교 분석	5
3. 체육교과 목적 및 내용의 분석	6
4. 체육지도 및 평가	8
5. 의의 및 시사점	9
III. 오주의 학교 및 사회체육 문화 사례연구	10
1. 호주 사회체육의 발전 배경	11
2. 호주 사회체육의 시설	11
3. 호주의 사회체육의 조직	12
4. 호주 사회체육 지도자의 양성	13
5. 호주 사회체육의 프로그램	13
6. 호주 사회체육의 장점	16
IV. 오주의 학교와 사회체육 연계 사례연구	17
1. 호주 학교 교육제도	18
2. 학교체육 및 사회체육	23
3. 호주의 학교체육을 위한 주정부의 노력	24
4. 학교-지역 연계 체육활동의 목적	25
5. 사회체육	26
V. 개인별 보고서	30
부록	59
1. 사진으로 보는 국외체험연수	59
2. 공무 국외연수 설문지	61
3. 공무 국외연수 참가자 명단	62

I. 연수개요 및 성과

1. 연수목적

- ➔ 국외 체육영재 프로그램 체험 및 역량 강화
- ➔ 경쟁력 있는 운동선수 및 학교체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사례연구
- ➔ 외국의 체육활동 및 체육 인프라 견학을 통한 견문도야

2. 연수기간 및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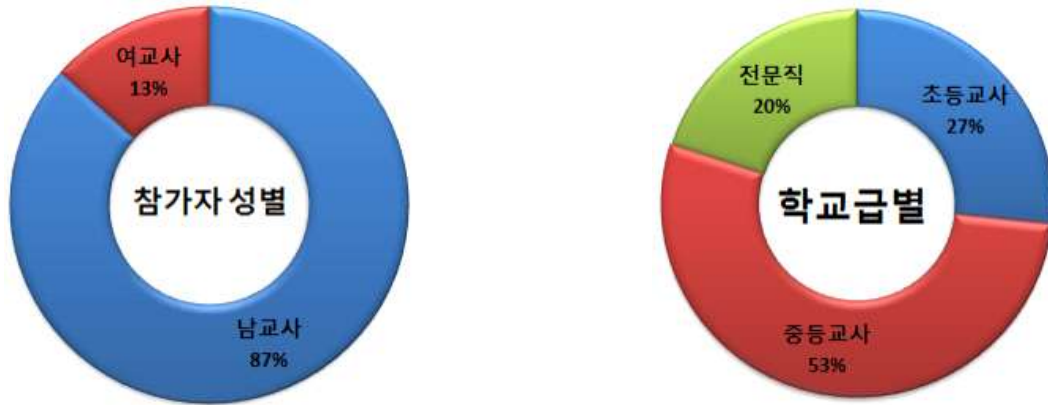
- ➔ 연수기간 : 2015. 1. 18.(일) ~ 1. 23.(금), 6일
- ➔ 연수국가 : 호주
- ➔ 참가인원 : 15명(유공교원 12명, 교육전문직 3명(인솔))

3. 연수일정

순	일 자	일 정
1일	1/18(일)	전주 →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 호주 시드니공항
2일	1/19(월)	09:00~11:00 시드니 올림픽 경기장 체육시설 견학 11:00~12:00 엘리트 체육시설에 대한 협의회 13:00~15:00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관람 16:00~18:00 Parramata 사회체육시설 견학
3일	1/20(화)	09:00~15:00 포트스테판(사막투어, 유람선) 관람 16:00~18:00 PCYC 청소년 생활체육시설 견학 1900~20:00 King George V Recreation Centre 견학
4일	1/21(수)	09:00~11:00 체육고 Westfield Sport High School 견학 11:00~12:00 Macquarie 아이스링크장 시설 견학 13:00~16:00 시드니 동부(본다이비치, 더들리페이지, 갭팍) 관람 17:00~18:00 MLC School 견학
5일	1/22(목)	09:00~12:00 Ian Thorpe Aquatic Centre 견학 13:00~17:00 시드니 시내관광(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리지, 매쿼리포인트)
6일	1/23(금)	시드니공항 →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 전주

4. 연수성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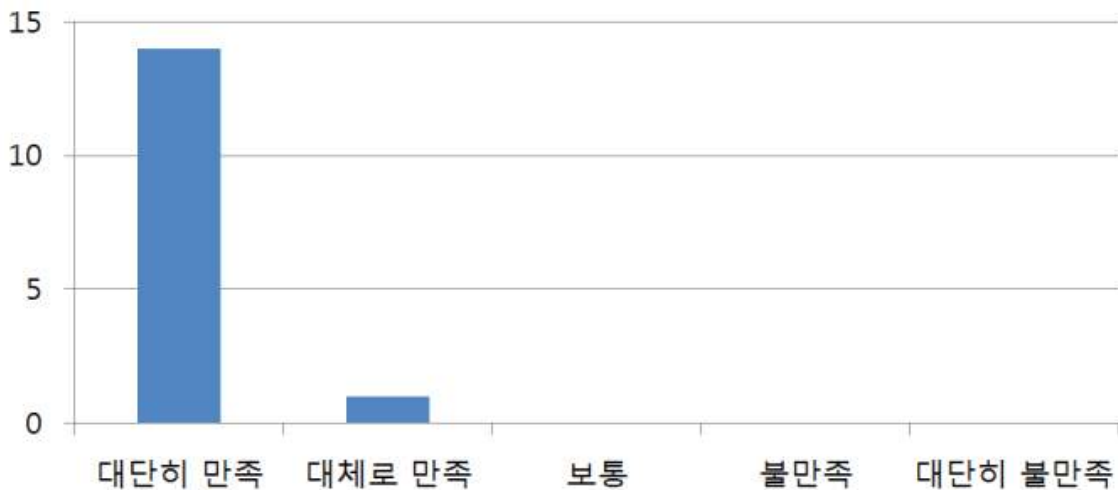
가. 참여 교사 현황



나. 공무 국외연수 전반(연수국, 연수기관, 연수일정)에 대한 만족도(N=15)

만족도	대단히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불만족	대단히 불만족
응답수	12	3	0	0	0

공무 국외연수에 대한 참가자 만족도(N=15)



- 연수국, 연수기관, 연수 일정에 대해 ‘대단히 만족한다’가 80%, ‘대체로 만족한다’가 20%로 국외체험연수 전반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함.

다. 국외체험연수 부분별 만족도(N=15)

- 공무 국외연수 연수국가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	대단히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불만족	대단히 불만족
응답수	14	1	0	0	0

○ 연수국가에 대해 ‘대단히 만족한다’가 93.3%로 연수국가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

- **공무 국외연수 중 방문 기관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	대단히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불만족	대단히 불만족
응답수	15	0	0	0	0

○ 방문기관에 대해 ‘대단히 만족한다’가 100%로 방문기관에 대해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

- **공무 국외연수 일정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	대단히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불만족	대단히 불만족
응답수	15	0	0	0	0

○ 공무 국외연수 일정에 대해 ‘대단히 만족한다’가 100%로 공무 국외연수 일정에 대해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

라. 권장사항 및 개선사항 의견

- ➡ 호주의 인기종목인 크리켓, 럭비 등의 경기규칙 안내 및 관람기회 필요
- ➡ 방문기간이 방학중이라 실제 수업장면을 참관할 수 없었음. 연수 계획시 일정 확인이 필요
- ➡ 새로운 체육 종목이나 시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 ➡ 유공자 대상 국외연수의 지속 필요

5. 연수효과

- ➡ 선진교육 현장 및 문화체험을 통해 글로벌 문화이해 능력 제고
- ➡ 외국 교육기관 탐방을 통한 문화의 다양성 이해로 현장 업무 개선 지식 습득
- ➡ 교직원으로서의 자존감 향상 등 긍정적 의식변화 및 업무개선 역량 제고

II. 호주의 학교 체육교육과정 사례 연구

(www.jbe.go.kr)

제1조 호주의 학교 체육교육과정 사례연구

□ 조 장 : 정00

□ 조 원 : 박00, 김00, 김00



1. 들어가며

호주와 한국의 학교 체육교육과정의 사례를 연구하여 이를 비교한다면 각국의 체육교육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내용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번 호주 국외 연수를 통해 학습하게 된 호주의 학교 체육교육과정과 한국의 학교 체육교육과정의 사례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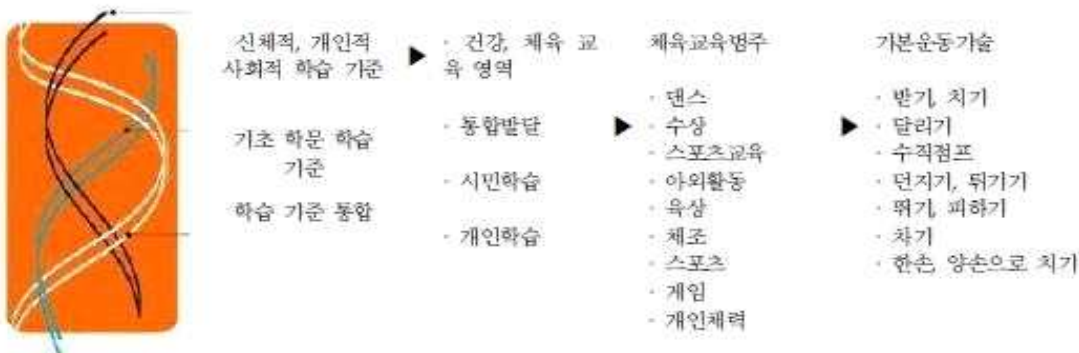
2. 호주와 한국의 체육교육과정 비교 분석

가. 교육과정체제 분석 및 모형

한국교육과정은 신체활동 가치를 상위개념으로 하여 학년별로 내용 가치를 제시하는 하향식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호주 교육과정은 교육목적을 제시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년별로 체육내용을 기본 운동중심에서 게임중심으로 점진적인 상향식 구성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학년별 체육교과서와 지도서가 있으나 호주는 체육교과서와 지도서는 없고 교육부에서 제시한 체육교육과정 종목별 게임수업 매뉴얼 중에서 교사가 선택하여 학년별 수업내용을 편성하고 있다. 또한 두 나라는 교과명칭에 있어서도 한국은 ‘체육’으로 호주는 ‘건강교육’(Health & Physical Education)으로 명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2차 교육과정 시기는 보건체육으로 사용하였으나 호주는 1997년 통합교육을 강조하면서 ‘건강 체육’(Health & Physical Education)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 체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체육활동이 개개인에게 갖는 의미를 중시하는 개인 의미모형이라고 볼 수 있고, 호주는 전형적인 발달 중심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체육교육과정의 철학적 배경

한국 체육교육과정은 개인의 신체활동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해석학적 구성주의를 토대로 한 개인적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으나 호주의 교육과정(2009)은 신체적 개인적 사회적 학습기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진보주의를 토대로 한 발달모형을 교육과정의 토대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빅토리아 학습기준과 기본 운동과의 연계성

3. 체육 교과 목적 및 내용의 분석

가. 목적

한국의 2007년에 개정된 체육과 교육과정 신체활동의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가치에 알맞은 학습내용의 신체활동을 선택하여야 하므로 상위 5개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하향식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도전가치→ 도전활동→ 동작도전→ 평균대운동’으로 상위개념인 도전 가치로 출발하여 중역역과 소영역으로 상세화되고, 동작도전을 하기 위한 평균대 운동을 하는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평균대운동은 동작도전 활동으로 동작도전을 할 때 비로써 도전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는 곧 도전을 했을 때 체육교육의 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호주 체육교육과정은 주요 학습기준(VELS)을 토대로 하여 운동기술개발, 신체활동참여, 스포츠교육의 3가지를 학년별로 세분화하여 구성해놓았다. 체육목적은 비교해보면 한국은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의 가치개념을 핵심기준으로 제시하고, 이를 다시 학년별로 하위개념 즉, 도전을 동작도전, 상대도전, 타켓도전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고, 호주에서는 건강 및 체육을 운동기술개발, 신체활동참여, 스포츠교육 3가지를 핵심 체육개념으로 하고, 저·중· 고학년별로 성취해야 할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5가지 하위개념으로 학년별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호주는 학년별로 기본운동과 특정 스포츠에 기본운동을 적용하는 전형적 운동기술 중심으로 하여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건강가치에 운동과 안전에 관한 개념만 제시하고 있으나 호주의 교육과정에서는 건강교육을 인간의 성장발달, 개인정체성의 정신건강, 안전 건강관리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호주 빅토리아주 초등학교 체육교과 주요학습 내용기술표

학년	Prep, 1 - 2 학년	3 - 4학년	5 - 6학년
핵심 개발 및 기술			
운동기술 개발	기본운동기술 및 환경적응 조작 움직임 하기	기본운동수행 및 복합운동하기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동운동과 리듬표현하기	복합운동기술 수행하기 다양한 운동기술과 스포츠에서 적용 정형화된 움직임 창의적이고 협동적인 움직임하기
신체활동 참여	규칙적인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일정시간 규칙운동에 참여 신체활동과 건강관계 쓰기	건강과 운동체력양성을 위한 규칙적 운동참여
스포츠 교육	단순운동용어와 신체활동에 대한 표현하기 규칙 지키기와 기구 및 공간의 안전한 이용	규칙역할 설명과 운동안전 설명 기구 및 공간의 안전한 이용	게임에서 권술이용하고 협동과 경쟁하며 공동목적 성취하기 감독과 심판의 역할 이해 안전규칙

나. 내용

한국 체육교육과정에서 체육내용은 5개의 상위개념을 구체화시킨 하위개념 가치를 구성하였다. 즉 중영역과 소영역에서 가치를 구체화하고 그 가치에 알맞은 내용을 교사가 선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는 해석학적 교육철학에서는 특정한 내용을 두지 않고 가치에 따라 신체활동 내용을 선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건강, 가치, 중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특성이나 환경에 따라서 에어로빅 댄스를 하거나 수영, 자전거, 오래달리기 등을 선택해야 하므로 학년별 내용을 특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호주 교육과정의 체육 교과내용은 학년에 따라서 철저히 운동종목을 학년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위 교육과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기능을 저학년에 제시하고 이를 반복적 점진적인 나선형 모형으로 고학년(5~6)에서 어려운 운동기술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는 기본 운동이 운동내용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이를 토대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복합적 운동단계로 이동하는 전형적 발달모형(Vannierand Gallahue, 1979)을 토대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볼 때 한국과 호주의 체육교육과정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를 보고 있었다. 한국은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를 신체활동 가치로 놓고 그 하위 개념을 학년별로 나누어 놓았으나 호주는 기본 운동을 중심으로 하여 달리기, 구기, 체력운동, 수영, 배트볼, 크리켓 등 체육활동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상위 체육활동 가치에서 하향식으로 제시되어 기본 운동이 없으나 호주에서는 기본 운동을 중심으로 상위 교육목적(VELS)을 달성하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

호주 빅토리아주 초등학교 학년별 학기별 체육교과 교육과정 내용 및 기술표

학년 학기	Prep, 1-2	3-4	5-6
Term 1	Athletics Spmts,Novelty Relays, Shuttle Relays, Hurdles	Athletics Spmts,Novelty Relays, 200m Race, Shuttle Relays, Hurdles	Athletics Spmts, Novelty Relays, 200m, 40m, 80m Race, Shuttle Relays, Circular Relays
Term 2	Soccer Dribbling Kicking with both left and right feet, Goal Kicking, Target Kicking	Soccer Dribbling, Kicking One-on-one Trapping, Goal Kicking	Soccer Control Dribbling, Kicking, Heading, Tackling Foot juggling,Trapping
	Football Kicking with both feet Handballing, Marking	Football Kicking, Handballing, Marking	Football Kicking, Handballing Goal Kicking, Marking
Term 3	Ball-Handling Skills Rolling, Throwing Bouncing, Catching	Fitness Testing; Balance Test, Sit and Reach Standing Broad Jump Sit-Ups in 30 secs, Shuttle Run	Fitness Testing; Balance Test, Sit and Reach Standing Broad Jump Sit-Ups in 30 secs, Shuttle Run
	Hocky Dribbling, Safety Issues Hitting, Target Hitting, Stopping	Hocky Control Dribbling Safety Issues, One-on-one, Trapping, Hitting, Hit 'n Run	Hocky Control Dribbling, Stopping, One-on-one, Trapping, Hitting, Goal Shooting, Pushing, Defensing-Offensing
	Bat'n Ball Throwing, Catching, Hitting, Bouncing with a bat and ball	T-Ball Throwing, Catching Running Bases Fielding, Skills 'n Strategies	T-Ball Throwing, Catching, Running Bases, Rules, Team Work, Fielding
	Ball-Handling Manipulation, Rolling, Bouncing, Kicking	Netball Throwing, Passing, Goal Throwing, Catching, Positioning	Netball Throwing, Passing Goal Throwing, Catching Defensive Work
Swimming Program Tableid Sports	Swimming Program Field Events	Swimming Program Field Events	
Term 4	Circus Skills Juggling, Spinning Plates, Hula Hoops, Skipping, Diabolo	Basketball Control Dribbling, Throwing, One-on-one, Shooting Goals, Defensive Skills, Lay-ups	Basketball Control Dribbling, Throwing, One-on-one, Goal Shooting, Defensive Skills, Lay-ups
	Bat 'n Ball Throwing, Catching Hitting, Balancing	Newcombe Ball Throwing, Catching, Rotating	Newcombe Ball Throwing, Catching, Rotating
	Bat Tennis Hitting, Batting	Cricket Batting, Bowling, Fielding	Cricket Batting, Bowling, Fielding
	Fun Run Training	Life-Saving Competition	Life-Saving Competition

4. 체육지도 및 평가

두 나라의 교육과정에서 차이점은 교사들이 체육수업을 할 때는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자신의 경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체육 교육과정은 별 차이가 없다고 보여진다. 평가는 학습목표 달성여부 즉, 체육목표를 달성했느냐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로 수업의 질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이다. 그러나 한국 체육교육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거의 되어있지 않고 교과서와 지도서에 형식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뿐이다. 또한 호주 교육과정에서는 운동영역별 기준과 4단계 척도로 자세히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기술평가를 한다는 지침으로 교사에게 일임한 우리나라와는 크게 차이가 있었다.

지도방법 및 평가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는 교사에게 전권을 일임하고 있으나, 호주는 매우 상세한 지도방법과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다. 한국은 체육 교육과정을 신체활동 가치 중심 개인 의미모형으로 바꾸었으나, 지도방법이 소홀하여 결국 전통적 체육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호주는 발달중심모형 교육과정에 따라 매우 섬세한 수업방법과 평가방안을 제시하여 공교육의 책무성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빅토리아주 A초등학교 4학년 체육교과 성적표

PHYSICAL EDUCATION		Year 4 Semester 2 2009																	
Unit Focus Teacher: Mrs Louise Breslin Learning Focus: At this level students practise and develop competency in more complex physical skills. They discuss performance criteria through modified games and begin to apply their skills in sport-specific settings. They begin to work with others in both cooperative and competitive games. They develop a range of movement patterns in an aquatic environment. This semester the students have participated in modified hockey, skipping activities, basketball, newcombe ball, field athletics, swimming and cricket.																			
Learning Area	Achievement	Year 3	Year 4	Year 5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At standard																		
Work Habits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td> <td>NA</td> <td>A</td> <td>VG</td> <td>E</td> </tr> <tr> <td>Effort</td> <td colspan="4"> ----- ----- ----- ----- </td> </tr> <tr> <td>Class Behaviour</td> <td colspan="4"> ----- ----- ----- ----- </td> </tr> </table> <p>NA : Needs Attention, A : Acceptable, VG : Very Good, E : Excellent</p>						NA	A	VG	E	Effort	----- ----- ----- -----				Class Behaviour	----- ----- ----- -----			
	NA	A	VG	E															
Effort	----- ----- ----- -----																		
Class Behaviour	----- ----- ----- -----																		
What [student name] has achiev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Created and performed movement sequences and patterns. Participated in cross country/fun run training Performed skills required to play basketball Demonstrated correct serving and passing in newcombe ball 																			
Areas for improvement/future lear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Perform physical skills and apply them to different sports Demonstrate more complex physical skills Demonstrate correct technique in triple jump 																			

5. 의의 및 시사점

2007년에 개정된 한국체육교육과정과 2008년에 개정된 호주체육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교육과정의 내용을 담는 체제는 학습기준 내용구성 교수방법 및 평가를 제시하는 형식에서 비슷하나 한국은 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가 있으나 호주는 교사들의 수업매뉴얼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었다. 또한 한국은 신체활동 가치 중심의 개인의미모형이고, 호주는 기본운동 기술 중심의 발달모형 중심의 교육과정이었다.

둘째, 교육과정의 철학적 배경은 큰 차이점이 있었다. 한국은 신체활동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의미중심의 해석학적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호주는 학습자 발달 단계중심으로 하는 발달중심의 진보주의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셋째, 체육목적은 우리나라는 내재적 가치 중심으로 하는 표현, 도전, 경쟁을 즐기며 능력과 이를 이용한 건강과 여가활동능력을 추구하는데 있으나 호주는 신체적 능력, 사회적 능력, 건강을 추구하는 외재적 가치 중심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 두 나라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

넷째, 체육 내용은 우리나라는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의 신체활동 가치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가치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나, 호주 교육과정은 저, 중, 고 학년별로 기본운동 중심의 복잡한 내용으로 나선형적인 육상, 구기, 체력운동, 수영, 필드 운동 등의 운동 종목별로 제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다섯째, 수업방법 및 평가에서는 우리나라는 수업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호주에서는 매우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기술평가 중심으로 교사에게 위임되고 있으나, 호주에서는 4단계 척도별로 기술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평가자의 책무와 기준을 강조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 김범희(2011).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초등교육과 교육과정 비교.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6(4), 1-13.
김영범(2004). 서 호주 초등학교 체육교육과정 내용분석.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0(2), 19-30.
김진회(2004). 호주 스포츠교육 프로그램 : 특징과 시사점. 한국체육교육학회지, 8(2), 30-45.
문화체육관광부(2013). 체육백서 201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박문환(2004). 현대사회화 평생체육. 서울 : 대경북스.
Astadiums <http://www.astadiums.com>

III. 호주의 학교 및 사회체육 문화 사례 연구

(www.jbe.go.kr)

제2조 호주의 학교 및 사회체육 문화 사례연구

□ 조 장 : 김OO

□ 조 원 : 정OO, 김OO, 김OO



1. 호주 사회체육의 발전 배경

호주 사회에서 체육은 건강과 체력 증진,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대다수의 국민들이 운동선수, 관람자, 자원봉사자, 코치, 스포츠 행정가등 다양한 체육 활동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호주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민간, 지역사회에 걸쳐 다양한 스포츠 조직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 스포츠클럽이 모여서 지역단위, 주 단위, 전국단위 스포츠협회를 구성하고 이러한 조직들 간의 협조와 의사소통이 호주 체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호주의 사회체육은 영국의 영향을 받아 주정부 지원에 지역사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었으며, 1972년 정부는 관광 여가 부를 신설하며 체육 및 사회체육 410개 부문에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이전까지의 정부지원은 체육시설 설치에 한정 되었고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정책에 의존하였으며, 호주의 전통적 스포츠키스템은 지역사회에서 성인중심의 스포츠클럽 활성화, 학교는 아동과 청소년 신체활동 주도하였고 연방정부는 스포츠보다 관광이나 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1980년 이전에는 스포츠부문에 크게 개입하지 않았다. 1980년대 이후, 연방정부는 엘리트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가는 추세에 있지만 전문체육의 근간이 되는 사회체육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호주체육은 오지스포츠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 호주 사회체육의 시설

주정부는 스포츠시설을 건립, 스포츠클럽에 제공하거나 유지, 관리를 임대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은 저렴한 가격에 회원에 제공되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연계체제가 구축되어 있고 지역 레크리에이션 센터를 운영, 사회체육 소외계층이 이용하고, 학기 중에는 학생, 방학 중에는 일반인이 사용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며, 1982년 국립스포츠정보센터가 설립되었다.

※ Ian Thorpe aquatic centre

Ian Thorpe는 1982년 10월 13일 시드니 교외의 밀퍼라(Milperra)에서 태어났으며, 오스트레일리아의 수영선수로 '소피도(Thorpedo)', '인간어뢰'라는 별명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수영중거리 종목에서 역대 최고 선수 가운데 한명으로 꼽힌다. 올림픽에서만 금메달 다섯 개를 딴 그는 오스트레일리아 올림픽 최다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하다.

1997년 후쿠오카에서 열린 범태평양 대회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대표로 뽑혔는데 당시 나이는 14세로 오스트레일리아의 남자선수로는 역대 최연소였다. 이때 400M 자유형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또다른 10대 선수 그랜트 헤켓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Ian Thorpe는 195cm 큰 키에 체중은 105kg으로 수영선수로는 거구이며, 어렸을 때 많은 이들은 그가 계속 성장하면서 10대 때 실력을 유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지만 기우에 그쳤다. 이는 트레이드 마크인 6박자 킥으로 경기 막판 강력한 스퍼트를 하기 때문인데, 보통 사람보다 큰 발 덕분이라고 여겨진다. 개인종목과 계영 종목을 합쳐 세계신기록을 22번이나 세웠으며, 2006년 갑작스럽게 현역 은퇴를 선언하였다.



Ian Thorpe aquatic centre는 Ian Thorpe의 업적을 기리며 건립한 수영장으로, 시드니 교외, 뉴사우스 웨일즈에 위치하고 있으며, 3개의 수영장과 휘트니스 센터 및 기타 시설들을 갖추고 있

다. 시드니시와 뉴사우스 웨일즈의 YMCA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령층의 구미에 맞춘 다양한 수준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가. 수영장 : 세 개의 풀을 보유하고 있으며, 50미터 풀(26.5도), 여가용 수영장(30도), 온수풀(33도)이 있다. 프로그램으로는 유아와 아동을 위한 수영반이 개설되며 어른들을 위한 Swim Fit 반이 있고 swim squad training이 가능하며, 다양한 연령 및 레벨별로 맞춤형 아쿠아에어로빅 반도 개설되어 있으며, 수중 휠체어도 이용할 수 있다.

나. 휘트니스 센터 : 유산소 및 근력운동 기구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그룹별 fitness, training, circuit 수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1대1 PT도 있다. 또한, 필라테스, 요가, 복싱, Spinning등의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다. 기타시설 : 사우나, 스팀, 카페, 99대 차량 주차 가능한 주차장

라. 운영시간

- 월~금 : 오전 6시~저녁 9시 (휘트니스센터는 저녁 10시까지)
- 주말 및 공휴일 : 오전 6시~저녁 8시 (Good Friday와 Christmas Day 휴관)

마. 이용금액

구분	성인	할인표	가족	360 city access card
수영장 입장권	\$7	\$5.20	\$18.50	\$2
수영장 20회 입장권	\$111.50	\$78.70	-	-
수영, 스팀, 사우나	\$14	\$10.50	-	-
체육관 입장권	\$19.20	\$14.40	-	\$5.50
체육관 10회 입장권	\$171.60	\$101	-	-

바. 기타 : 수영장 입장 시 가족멤버 1인 추가: \$2.30, 수영장 관람: \$3.20
(360 city access card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임)

3. 호주 사회체육의 조직

1972년 관광 여가 부를 신설하였으며, 1981년 호주체육 원이 설립된 후 호주정부의 체육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되었고 1989년 호주체육위원회가 호주 체육원을 흡수 통합하여 국가체육집행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고 그 후, 환경스포츠 영토부의 레크리에이션과 스포츠 업무는 1998년 10월 이후 산업과학자원부에서 담당하였으며, 산업과학자원부는 관광과 스포츠업무를 관리하며, 스포츠 여가 국은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을 관리하고 호주스포츠위원회는 연방정부의 스포츠 진흥을 관리하는데, 1989년 스포츠 위원회 법에 의거하여 연방정부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재정지원과 스포츠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스포츠에 관한 모든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Olympic Stadium



-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 주 시드니 홈부쉬 지역에 위치한 다목적 경기장으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위해 6억 9천만 오스트레일리아 달러가 투입되어 1999년 3월 완공되었으며, 2003년 럭비 월드컵이 개최된 곳이다.

- 완공 초기에는 오스트레일리아 국내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올림픽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 11만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건설되었으나, 2003년 경기장 남쪽과 북쪽에 이동식 관중석을 설치하며 직사각형 모양으로 관람석 배치 시 83,500명, 타원형 배치 시 81,5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조되었다.

- 버려진 땅, 쓰레기 매립지 위에 건설한 올림픽 스타디움으로 자연광을 최대한 살리면서 관중석에는 햇빛이 들지 않도록 건설하였으며, 천정에는 스테인리스 홈통을 설치해 빗물을 재활용토록 하였다.

- 서울보다 12년 뒤인 2000년 9월 15일 ~ 10월 1일까지 아름다운 항구도시 시드니에서 열린 제 27회 시드니 올림픽은 환경친화적인 올림픽으로 치룬 대표적인 환경올림픽이었다.

4. 호주 사회체육 지도자의 양성

호주는 지도자의 역량제고가 사회체육 발전에 주요 요소임을 인식하여 체육지도자협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상급지도과정, 지도자 자격증,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고 지도자 자격제도를 마련하여 전문지도자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5. 호주 사회체육의 프로그램

가. Life Be In It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권장, 유도함으로써 경쟁적 활동보다는 신체활동 참가를 통하여 전 가족이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놀이 프로그램이다

나. Aussie Sports

사회체육 발전을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추진됨. 청소년 교육과 성장, 즐거움, 공정함, 기술의 향상, 우수한 지도, 적극적 참여 등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 MLC School



1) 학교 설명

시드니 대학교에 여성이 입학할 수 있게 된지 불과 5년 후인 1886년에 개교한 여성을 위한 학교로, New South Wales에서 여성교육에 혁신을 불어온 학교이다. MLC School은 호주 사회에 여성이 뛰어난 공헌을 할 수 있으며, 역사에 주목할 만한 위업을 남길 수 있다는 신념하에 여성을 교육해왔다. 또한, 모든 학생은 자신만의 재능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 하에 학생들이 자신만의 색을 찾을 수 있게 폭넓은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부터 12학년까지의 소녀를 교육한다.

2) 커리큘럼

가) Junior school (5학년 이하 여아)

여아의 성공적인 학습경험에 튼튼한 기본을 확립하기에 중요한 시기인 아동기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365명 정도의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아이의 지적, 감정적, 영혼적, 신체적, 사회적 배경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나) Middle Years (6학년~8학년 : 10~14세)

6학년 : 멘토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성과를 모니터하며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다. 6학년의 통합 과정은 숲, 습지, 산호초에 대한 환경조사이다. 댄스와 드라마 교실이 환경에 대한 지각과 책임감의 중요성을 표현하도록 돕는다. 현장체험학습으로는 4일간 캔버라로 여행을 가며, Pastoral Care Program이 여아들이 청소년으로서 관계를 형성하고 레질리언스(회복성)을 발달시키도록 돕는다.

7학년 : 7학년 학생들을 지도하는 핵심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지원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핵심 과정을 가르치는 멘토들이 학생들의 학습 성장을 모니터하며 전문가로서 학생들을 돕는다.

8학년 :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핵심 과목을 공부하며 전문가 선생님의 지도를 받는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를 찾을 수 있는 City Experience 프로그램 역시 제공된다.

다) Senior School Years (9~12학년) : Individual, Independent, Inquirer를 핵심 가치로 생각하며 학생들을 교육한다.

Individual (개인에 집중한 교육) :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개인의 학습스타일 및 근무스타일

을 찾을 기회를 준다는 목표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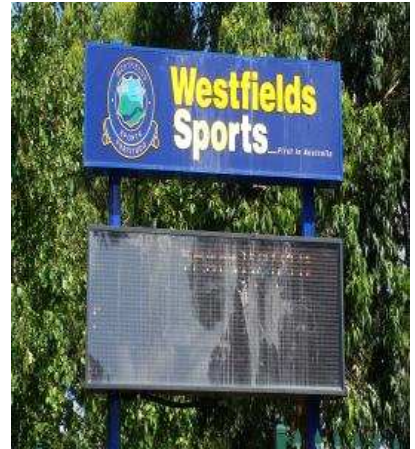
Independent(독립적인 여성) : 효과적인 학습은 적극적으로 배우고 협동적인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생각으로 협동학습 내에서 학생이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지각하도록 돕는다는 목표를 지닌다.

Inquirer(탐구적인 여성) : 우리 모두는 독립적인 흥미를 지니고 열정과 의문을 지니므로 여학생들이 도전적으로 탐구하고 동기부여가 되도록 돕는다는 목표를 지닌다.

라) 파트너십

아쿠아틱센터, 돌봄프로그램, 다이빙, 체육관, 악기배우기, 테니스, 연기학습, 영화 제작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라. Westfields Sports High School



1) 학교설명

시드니 남서쪽에 위치한 Westfields Sports High School은 1963년에 처음으로 종합 남녀공학 고등학교로 학생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1992년에 호주 최초의 체육고등학교가 되었다. 지역 내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14개의 독보적인 체육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받고 있다.

Westfields Sports High School은 현재까지 270명 이상의 학생들이 체육분야에서 호주를 대표해왔고, 호주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체육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2013년에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의 "Sport and Youth Trophy"를 보유했던 학교이다. 2014학년도에는 우수한 체육인재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 체육 단체인 Australian Sports Commission, AIS, State Sporting bodies 및 지역 내 학교와 대학들과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 학생구성

1604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남학생 54%, 여학생 46%로 구성되어 있다. Westfields Sports High School의 학생 중 64%는 비영어권국가 학생들이며, 비영어권 국가 학생들 중 비교적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학생들은 베트남 12%, 태평양섬지역 8%, 아랍 7%, 아시리아 7%, 스페인 6%이 주된 구성원이다. 또한, 1.7%의 Westfields Sports High School 학생들은

호주원주민으로 구성되어있다.

3) 교직원

107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으며 이 중 20명이 행정직, 28명이 코치진이다.

4) 체육실적

2013학년도 체육실적을 보면 National Rugby League(NRL)에서 18명의 졸업생이 활동하였고, Hyundai A-league에서 17명의 졸업생이 활동하였다. 또한 westfield W-League에서 8명의 졸업생이 활동하였고, 5명의 졸업생이 Socceroos에서 활동하였다. Kim Ravallion은 Netball에서 호주국가대표로 활동하였고, Michael Clarke는 호주크리켓주장으로 선발되었다. Usman Khawaja 역시 호주 test 크리켓 팀에서 활동하였고, Matt Ryan은 브라질에서 펼쳐졌던 2014 FIFA World Cup 23명 선수로 발탁되었다.

6. 호주 사회체육의 장점

호주 사회체육은 모든 사람들에게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스포츠가 활성화 되어 있고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발달되어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이 없고 올림픽 경기장을 활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였고 오지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체육이 활성화 되어 있다.

<참고 문헌>

- 권연택, 최정웅(2013). 사회체육정책 전개에 따른 사회체육 대중화 요소 변화 검토. 54(1), 307-318.
- 김나라, 정진철(2009). 호주 초중등교육 정규교과에서의 진로교육 내용 분석. 한국비교교육학회지, 19(1), 211-240.
- 김미숙(2010). 한국과 호주 노인의 여가 활동 실태 비교 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19(2), 167-184.
- 강재원, 김양례(2013). 호주 운동선수 진로전환, 지원교육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국내 운동선수 진로지원 방안.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8(1), 263-284.
- 권연택(2013).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체육의 발전과정과 미래 전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범 <http://cafe.naver.com/hy01097442442/230>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http://www.abs.gov.au>

IV. 호주 학교체육과 사회체육 연계 사례 연구

(www.jbe.go.kr)

제3조 호주학교체육과 사회체육 연계 사례연구

□ 조 장 : 김OO

□ 조 원 : 채OO, 박OO, 양OO



1. 호주 학교 교육제도

가. 교육체계 개요

한국의 교육은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시작해 초등학교·중학교의 의무 교육을 거쳐 진학 의사에 따라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으로 이어지죠. 대학 진학률이 80% 정도로 높은 편이니 보통 대학교까지가 일반적인 교육 과정이고 호주의 학교 교육은 프리 스쿨(preschool), 초등학교 준비반(preparatory)(또는 유치원 (kindergarten)), 초등학교(primary school), 중학교(secondary school)(또는 고등학교(high school)) 및 고등학교(senior secondary school)(또는 컬리지(college))로 구성됩니다.

학교생활은 초등학교 준비반에서 고등학교까지 13년이 소요되며, 최소 16세까지는 의무 교육입니다. 호주의 학교 유형으로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카톨릭 또는 이슬람 학교와 같은 종교 기반 학교 포함) 그리고 몬테소리나 스타이너와 같은 교육 철학에 기반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모든 학교들은 반드시 주 정부 또는 특별구의 교육부에 등록해야 하며, 기간 시설 및 교사 등록 부문 면에서 정부 요건에 따릅니다.

호주 학교는 단순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이상의 일을 합니다. 학교는 일생을 준비시켜 주는 단계로써, 커뮤니케이션 기술, 자기 수련 및 자신과 동료 그리고 세계에 대한 존중을 배웁니다. 학교들은 주요 학습 분야인 영어, 수학, 사회 공부 및 환경, 과학, 예술, 제2외국어(Languages Other Than English, LOTE), 기술, 보건 및 물리 교육과 같은 주요 학습 분야에 대해 광범위한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호주 학교는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팀워크, 자기 표현 및 개인 발달 등, 전인 교육의 혜택을 크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호주에서 다양하고 교육적인 학습 환경을 누리며, 개인적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즐기는 동시에 급변하는 세계에서 성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1) 학교 교육

학교 교육은 각 주나 특별구 사이의 약간의 차이점을 제외하고 호주 전역이 유사합니다. 6세부터 16세까지 학교 교육(1학년에서 9학년 또는 10학년까지)은 의무 교육입니다. 학교 교육은 13년이며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초등학교(Primary schools) : 1학년~6학년 또는 7학년
- 중등학교(Secondary high schools) : 7학년 또는 8학년~12학년
- 중학교(Junior colleges) : 7학년 또는 8학년~10학년
- 고등학교(Senior colleges) : 11학년 또는 12학년

가) 프라이머리 스쿨(Primary schools)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프라이머리 스쿨은 위 표에서 보시다시피 주나 특별구에 따라 6년 또는 7년 과정으로 다니게 됩니다. 보통 만 5세가 되면 입학하고요. 한국처럼 담임 선생님이 한 반을 맡아서 영어, 수학, 사회·환경, 과학, 예술, 보건·체육 등 8개 전체 과목을 가르칩니다.

• 초등학교 : 6세 또는 7세를 대상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준비반부터 시작하여 7년 또는 8년 과정.

의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네요. 선택과목의 폭이 좁은 과목은 만들지 않는 한국과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호주의 중·고등학교 교육과목에는 학생들의 관심 분야가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는데요. 학교 교육을 통해 흥미 있는 분야에 대해서 배우고, 그를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호주 교과목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 학교 교육과정

1) 초등학교(Primary School ; 6세 ~ 12세)

초등학교의 저학년은 주로 기본적인 언어(영어) 구사와 쓰기, 기초적인 산수, 사회, 체육, 창의력을 기르는 활동 과목과 같은 교육활동에 중점을 둔다.

초등학교의 고학년은 영어, 수학 체육 및 보건, 기술 과목을 배우며, 몇몇 학교는 음악 및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보통 교사의 지도 아래 그룹별 학습을 받으며 예체능 과목은 특별 교사에게 지도를 받는다.

- 학년은 "grades" 로 불림.
- curriculum은 호주전지역 동일하게 통일
- 영어, 수학, 과학, 언어과목을 공부함.

대부분의 호주 어린이들은 초등학교(Primary school)에 들어가기 전 5살에 1년간의 유치원 과정에 들어갑니다. 학생들은 특별한 부분에서의 능력시험 이외에 별도의 테스트 없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게 되며, 교과과정은 호주전역에 걸쳐 공통으로 적용이 됩니다. 영어, 수학, 과학, 언어 등의 학과목 외에도 사회환경과목, 기술, 보건, 인성계발 및 체육과목을 공부합니다.

2) 중학교(Secondary School ; 12세 ~ 16세)

- 7~10학년은 의무교육임
- 대학진학 또는 직업교육 중 선택하여야 함.
- School Certificate Exam을 통과해야함

12세 또는 13세인 7학년부터 4년간의 의무교육인 secondary school로 진학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primary school에서 배운 학문들을 더 심화된 수업을 받거나 원하는 경우 직업 코스를 이수하기도 합니다. 10학년이 끝날 무렵 학생들은 졸업시험을 치르게 되며, 학교를 졸업해서 직장생활을 시작하거나 직업학교로 진학할 수 있고 또는 12학년 졸업을 위해 추가로 2년간 더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보다 광범위하고 외국어와 예체능 과목등 구체적인 내용의 수업이 진행된다. 중등학교는 대학처럼 학생들이 직접 과목을 선택하여 교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듣고, 독립심을 기르고 스스로 학업하는 습관을 키우도록 유도한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요구와 용도에 맞는 융통성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처음 8~9학년은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기본 과목을 공부하며 이후에는 필수 과목인 영어, 수학, 인문사회과학, 체육과 선택과목 (외국어, 경제, 미술, 음악, 연극, 컴퓨터, 지리, 역사등)을 나누어서 공부하며 선택과목은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다.

3) 고등학교(High School)

11 ~ 12학년은 대학입시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 기간이며 선택과목의 범위가 더욱 다양하다.

학생들은 희망 대학과 전공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공대에 진학하려면 필수적으로 수학, 물리 또는 화학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때부터는 2년간의 내신성적과 QCST를 토대로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4) 중·고등학교 교육 과목

호주에서 학교는 성장을 위한 최고의 장소라고 합니다. 학습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기술, 문제해결능력,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 등 인성과 지성, 감성을 모두 성장시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빠른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는 중·고등학교(세컨더리 스쿨) 시기에는 학습능력도 중요하지만 인성, 지성, 감성이 균형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중요한 때이지요. 그럼 호주에서는 어떤 교육 과목을 통해 중·고등학교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의 중·고등학교는 보통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호주에는 호주 전역의 높은 학문적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인 교과 체계가 확립되어 있어 엄격한 관리를 통해 교사, 학습자료, 커리큘럼, 시설 등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업,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학생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호주 교육의 특징입니다.

교육 과목은 크게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집니다. 학생들은 우리나라 대학수업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들어야 하는 과목에 따라 교실을 옮겨 수업을 듣습니다.

학년	필수과목	선택과목
7~10 (중1~고1)	영어,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외국어, 음악, 미술, 방송학, 타자, 기술, 요리, 가사, 사진학, 볼링, 스케이팅 등
11~12 (고2~고3)	영어, 영문학, 경제학, 역사학, 법학, 정치학	외국어, 지리학, 물리학, 화학, 수학, 생물학, 회계학 등 (문과/이과에 따라 선택)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선택과목인데요. 제2외국어나 음악, 미술과 같은 과목은 한국에서도 크게 차이가 없지만 방송학, 요리, 사진학 등의 과목은 생소하게 느껴지네요.

한국에서는 선택과목이라고 해도 학업만을 위한 과목이 많은데, 호주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과목 외에도 심리학, 그래픽디자인, 항공학, 연극 등 매우 넓은 분야의 과목들이 있다.

이러한 선택과목은 앞서 말씀 드렸던 국가 커리큘럼에 의한 것으로 영어, 수학, 사회환경, 과학, 예술, 제2외국어, 기술, 자기계발, 보건, 체육의 8개 주요 학습영역을 모두 배울 수 있도록 짜여 있습니다. 모든 과목들은 전문교사가 직접 가르치며 수업의 특성에 맞는 실험기구 혹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호주 교육 자격 제도

호주 교육 체계는 다른 여러 국가들과 구분되는 호주 교육 자격 제도(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 AQF)(opens in a new window)를 두고 있습니다. AQF는 1995년에 도입되었으며, 졸업장, 고등학교 졸업장과 더불어 대학/대학원 교육 부문(고등교육 및 직업 교육 및 훈련)의 자격 사항을 관장하는 국가 정책입니다.

AQF는 10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 직업 훈련 교육 및 대학 교육 자격증을 단일 국가 시스템으로 통합합니다. 학생 비자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이를 통하여 용이하게 다음 교육 단계로 진학하고 다른 교육 기관으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커리어 계획을 세우는 데 보다 넓은 선택의 여지와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AQF의 모든 교육 자격증은 학생들이 진학이나 취직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QF 자격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학교가 정부 승인 및 국가적 인증을 거친 교육 기관이며, 자신의 학위나 기타 AQF 자격증이 정식으로 인정됨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교육 기관들은 호주 전국 및 전세계 여러 국가들과 연결되어 있어 과정 및 교육 기관 간의 이동이 간편하며, 학생 개개인의 진학 및 취업 목표가 무엇이든지 간에 공식 협정 및 인증 체계를 통해 과정을 하나씩 밟아나감으로써 학생들의 미래 진로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1) 높은 수준의 학습

호주 학교들은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합니다. 호주 교육의 가치는 다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정예 수업(한 교실당 학생 30명 이하).
- 대학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교사와 각 과목에 따른 전문 교사.
- 높은 수준의 시설 - 모든 학교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갖추는 등의 높은 기술 수준.
-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영재(Gifted and talented)' 프로그램.
- 최고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선행 학점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는 '최고 성적(High Achievement)' 프로그램.
- 추가적인 학습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개별적인 학습 프로그램.
- 학교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표준을 통한 품질 보증 체계.

2) 생각의 리더 창출

호주 학교의 커리큘럼은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호주 학교는 학생들이 글로벌한 세계에서 성공적인 삶을 이끌 수 있도록 모든 기술, 지식, 그리고 역량을 제공하여, 학생들을 독립적이고 성공적인 학습자이자, 자신감 있고 창조적인 개인, 그리고 적극적이며 지식 있는 시민으로 키워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 호주 학교는 각 학생들을 평등하게 대우하며, 모든 교육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3) 교습 양식 및 평가 방법

교사의 직접 수업, 학생 연구, 그룹 프로젝트와 발표, 시각적 발표, 온라인 학습 및 인터랙티브 교실을 포함한 다양한 교습 방식이 사용됩니다. 학생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 방법이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시험 및 과제뿐만 아니라, 개인 연구 프로젝트, 그룹 과제, 구두 및 시각적 발표, 팟캐스트(Podcast) 또는 보드캐스트(Vodcast) 발표와 같은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들도 포함됩니다. 표준을 준수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가 및 주 전체 시험 프로그램도 치러집니다.

2. 학교체육 및 사회체육

가. 공립학교에서 실행되고 있는 의무 체육시간

공립학교 학생들은 2007년부터 학기 중 의무적으로 주당 최소 2시간씩 체육시간을 가지고 있음.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최소 2시간씩의 체육시간이 학습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행되고 있음. 각 학교는 근육발달을 위한 기본 체육 프로그램과 농구, 치어리딩, 하키, 서핑, 발리볼 등과 같은 경쟁스포츠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학생들이 정식레슨부터 게임까지,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작년부터 교육부는 ‘잘 먹고, 잘 놀기’ 안내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학부모들에게 도시락 메뉴, 여가 활용 그리고 학생들의 외부활동들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최근의 유아청소년기의 체육활동과 영양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생 중, 1/4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으로 나타났으며, 단지 절반수준의 어린이들만이 충분한 체육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권장량이 훨씬 못 미치는 양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과 청소년(5~18세)은 매일 60분 이상 신체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 하루 전자매체 사용(컴퓨터 게임 등)은 2시간 이하로 줄인다.

나.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체육

건강한 신체와 학문 성취도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다. 체육 활동은 건강한 육체 형성에 도움을 주지만 정신 건강에도 효과적이다. 건강한 신체를 지닌 학생들은 기억력이나 집중도, 자존감, 자아 효능감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그만큼 규칙적인 체육 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취도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 중요성은 공감되고 있고 그 효율성을 현장에 적용시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학생들이 적절한 체육 활동을 통해서 보다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독특한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는이다.

3. 학교체육을 위한 주 정부의 노력

호주의 교육 시스템은 총 9개의 주에 공립과 사립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9개 주 모두 초등 교육과 고등 교육의 두 단계로 분류되어 시행되고 있다. 6세에서 13세까지 초등 교육을 마치면 14세부터 18세까지 주니어와 시니어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된다. 호주 교육부는 특히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 성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2005년 호주 주 정부가 새로 발효한 법령에 따라서 일주일에 최소한 2시간의 체육 활동을 교과과정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체육 교육 정책은 국가 부서인 교육부에서 총괄하고 있으나 주마다 담당 부서가 자체적으로 그 주의 특성에 맞는 체육 교육 정책을 펴고 있다. 이 정책들 중에서 유사성을 띠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와 지역 체육을 연계시키려는 시도가 그것이다.

빅토리아(Victoria) 주는 학교 활동과 지역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체육 교육 정책을 펼쳐 왔다. 학교 교사의 전문성과 지역 체육 강사의 경험을 동시에 활용하자는 윈-윈 정책의 일환이다. 우선 학교는 교과 과정을 수립할 때 지역 체육 단체 현황을 파악하고 학교에서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을 찾는다. 지역 체육의 전문성이 많이 확보된 피트니스, 풋볼, 테니스, 농구가 좋은 예이다. 학교는 한 학기당 12시간을 외부 체육 활동으로 배정한다.

빅토리아 주는 지역 YMCA와 연계하여 체육 활동을 하고 있다. 이를 실행하는 과정은 결코 빠르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모임과 회의, 확인을 거쳐서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된다. 학교

와 YMCA 강사들이 사전 회의에서 어떤 방향으로 학생들에게 체육 활동을 제공할 것인지 논의한다. 그 외에 학생, 학부모, 지역 리더들을 심층 인터뷰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제공될 최적의 체육 활동을 도출해 낸다. 그다음 학교 교사와 지역 체육 강사들은 워크숍을 통해 실행할 체육 활동의 장단점을 확인한다. 실제로 수업을 하는 동안에는 Team-teaching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육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 체육 강사들도 이 경험을 통해 지역 공동체에 체육 활동과 관련한 기여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학교 교사로부터 체육 교습에 대해 배우는 부분도 추가된다.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 주도 학교 체육과 지역 체육의 공조를 강조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학교 체육시간에서 제공되는 교육의 한계를 지역 체육 단체나 시설과 연계해 수행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때 학교의 교장은 지역 체육 단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학교는 어떤 종목이 그 학교에 필요한지를 파악한 후 시설 조건, 임시 강사의 범죄 경력 등의 신분 조회, 어린이를 교육 할 수 있는 자격 확인, 그리고 제반 비용 등을 그 체육 단체와 협의 후 합의에 이른다. 이후에는 학교 체육 교사, 행정 직원, 학부모, 지역 체육 단체 강사가 수업에 대한 최종 조율을 한다.

웨스턴 오스트랄리아(Western Australia) 주는 주 정부의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부서에서 학교 체육을 관장한다. 이 주는 학교의 방과 후 체육 활동에 집중 지원을 한다. 학생들이 학교 체육 수업 후에 지역 체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체육 단체와 연계를 하고 있다. 그만큼 다양한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근력 운동을 경험하고 그 결과 신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러면 학문적 성과와 함께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믿음에서다.

4. 학교-지역 연계 체육 활동의 목적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육 활동을 경험하도록 하는 목적은 우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지냄으로써 우울증을 방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병을 예방하고 비만을 유발하는 생활을 벗어나는 것도 주된 목적이다. 그리고 적당한 체육 활동은 올바른 수면 습관도 길러주기 때문에 생활의 리듬을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학교와 지역 연계 체육 활동은 신체 단련으로 생활에 능률이 올라 건강한 정신이 함양되어 성적이 오르는 등 정신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뉴 사우스 웨일즈 주의 체육과 생활 건강 부서는 하루에 60분 정도의 가족 운동 시간을 지킬 것을 장려한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 이용을 하루 최대 2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특히 많은 활동을 해야 할 낮에 이용을 피할 것을 제안한다.

호주 주 정부가 학교-지역 체육 연계하는 과정을 볼 때 많은 준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학교와 체육 단체는 청소년 보호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하며 학교는 제반 법적인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사전에 법령 숙지가 필요하다. 학교의 체육 교사들은 외부 임시 강사의 교습 중에도 학생들 관리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주어진다.

호주에서는 학생들이 집이나 학교 책상에만 앉아 있거나 컴퓨터 게임만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체육 활동 정책을 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지역 체육 활동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안전에 심혈을 기울인다. 그만큼 학생들 체육 교육에는 책임이 따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체계적인 체육 활동이 결국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요인이 됨을 인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지역 체육 활동 연계를 고려해도 좋을 것이다.

5. 사회체육

호주인의 건강과 병역에 복무하는 청년들의 체력은 지도자들의 깊은 관심사가 되어 건강과 체력이 학교 체육 계획의 주요 목표가 되었다. 그러나 스포츠를 애호하는 호주인은 체육활동의 사회여가적인 목적을 놓치지 않고, 여가 시간을 다양하게 지낼 수 있도록 스포츠 기술을 더욱 조직화 된 기반 위에서 가르치고 있다.

연방 체육 담당관은 주립 학교나 그 외의 학교 및 각종 체육적 레크레이션에 관심을 가진 다른 단체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주 체육 담당관은 학교, 민간, 반관 반민 단체의 체육,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체육은 초, 중등 학교나 교원 양성 대학에서도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다.

학교는 여러 가지 형태의 학교 스포츠 협회를 가지고 있으며, 도시는 도시 스포츠 클럽을 가지고 있다. 또 각 주 에는 모든 스포츠에 걸쳐 남녀를 대상으로 한 주경기 협회가 있다. 학교에서는 체조 형태의 운동이 체육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남녀를 대상으로 한 각종 스포츠를 가르치고 있다.

중등학교는 크리켓, 축구, 조정, 육상 경기, 수영, 농구 등의 협회를 가지고 있다. 축구나 크리켓 클럽은 장래의 선수를 보충하는 기반으로써 학교 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교 대항 경기회가 남녀 학교에서 각각 행하여지고, 매년 주 선수권 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크리켓과 축구는 호주의 국기로서 호주와 영국의 크리켓 시합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여 시합시에는 10만 명 이상의 관중이 모인다. 수영은 가장 애호자가 많은 스포츠의 하나이다. 기후가 온화한 해안 가까이에 인구가 조밀한 도시가 있기 때문에 물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가 많이 보급되었다. 테니스도 매우 성행하여 세계적인 선수를 계속 배출함으로써 1919년, 1939년, 1950년의 데이비스컵 대회에서 우승하였다. 복싱과 레슬링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동계 스포츠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호주는 스포츠 국가로 정평이 나 있고, 호주인들은 스포츠를 사랑하며 또 스포츠에 뛰어나다. 1901년 연방이 탄생하기 전에도, '호주'는 국가로서 국제 대회에 참가했다. 비록 인구는 적지만, 호주는 각종 스포츠 종목에서 세계 챔피언들을 배출하고 있다.

호주 선수들이 챔피언이 된 것은 의지가 강하고 스포츠에 적성이 있어서만은 아니다. 과학과 훈련 그리고 혁신이 호주의 스포츠 성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엘리트 선수들도 코치와 매니저, 과학자, 의사, 물리 치료사 그리고 영양사들의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즉, 호주 사회에서 체육은 건강과 체력 증진,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대다수의 국민들이 운동선수, 관람자, 자원 봉사자, 코치, 스포츠 행정가 등 다양한 체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는 연방 정부, 주 정부, 지방 정부, 민간, 지역 사회에 걸쳐 다양함 스포츠 조직을 가지고 있다. 지역 사회 스포츠 클럽이 모여 지역 단위, 주 단위, 전국 단위 스포츠 협회(National Sportin Organization)를 구성한다. 클럽 단위에서는 자원 봉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주 단위나 전국 단위는 전문 행정가의 역할이 요구된다.

1) 학교가 주말 체육까지 책임진다.

모든 교사가 스포츠팀 코치 맡아 학교 수업이 없는 날 오전 6시. 호주 시드니 파라마타지역 킹스 스쿨의 농구팀 주장인 쿠나세 파라와다(12학년·고3)군은 농구화와 유니폼을 챙겨 학교 체육관으로 향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인근 쇼어 스쿨과의 농구경기가 예정돼 있었다. 킹스 스쿨의 전교생

1460명(유치원~12학년)에게 주말 체육활동은 필수다. 매주 토요일 NSW(뉴사우스웨일스)주 내 7개 사립학교와 주말리그 경기를 갖는다. 이날 하루에만 학교에서 수영·농구·크리켓 등 6개 종목에 걸쳐 100개 가까운 각종 경기들이 치러졌다. 자녀들의 운동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학부모들이 대거 학교를 찾아 교내 주차장은 빈 곳이 없었다. 학교 전체가 종합운동장으로 바뀐 느낌이었다.

가) 휴일에 더 떠들썩한 학교

호주의 학교는 평일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주말 체육활동까지 빠짐없이 관장한다. 호주 학교의 주말 체육시스템을 지탱하는 주역이 교사들임은 물론이다. 킹스 스쿨의 교사 140명 전원은 학생들의 체육활동 지도를 위해 휴일인 토요일에도 출근한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이 매주 토요일 참가해야 할 경기 일정과 장소가 공지되고, 경기결과 역시 전달된다.

학생들은 일주일에 5번, 매일 1시간30분씩 운동을 한다. 여름이면 농구를 하고 겨울이 되면 럭비를 즐긴다.

여학생들도 체육활동에 적극적이다. 여자 학교인 캔버라의 세인트 클레어 하이스쿨(학생 수 1220명)에서는 농구·하키 등 학교가 마련한 주말 체육 프로그램에 여학생 30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비용은 4~5개월에 150호주달러(약 15만원). 주말에 학교에서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교사가 연결해준 지역 스포츠클럽으로 향한다. 이 학교 체육교사인 데이비드 개러티씨는 "학생 절반 정도가 학교를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에 가입한다"며 "호주 학교 체육에는 사각지대가 없다"고 말했다.

호주 시드니에서는 12학년(고3)이라도 체육활동에서 열외가 없다. 킹스 스쿨(파란색 유니폼)과 쇼어스쿨의 12학년 학생들이 사립 8개 학교 주말리그 농구 경기를 하고 있다. 관중석은 응원 나온 학부모 100여명으로 가득 찼다.

나) 일반교사들도 체육 지도

학생들의 체육활동은 교사들의 지도·감독 아래 철저히 관리된다. 시드니 홈부시 하이스쿨은 체육교사 6명을 포함한 학교 교사 86명 전원이 교내 40여개 종목 팀의 코치를 맡아 학생들의 평일 체육활동을 지도한다. 홈부시 스쿨의 체육교사인 론 테드포드는 "교사 중 15명은 담당 종목의 지도자 자격증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시드니가 속한 NSW주 학생들의 정규 체육수업 시간은 일주일에 1~3시간으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의무적으로 추가 체육활동(스포츠 데이)에 참가해야 한다. 스포츠 데이는 2시간 정도의 체육을 하게 되며 성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체육활동에 빠져서는 안 된다. NSW주의 1600여개 공립학교는 물론 800여개 사립학교에서도 대부분 이를 채택하고 있다. NSW주 학교 체육 총괄 담당자인 로스 모리슨은 "체육은 수학처럼 점수를 매겨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즐기는 것"이라며 "스포츠 데이를 통해 학생들이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8학년(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 김 훌리아스는 "학교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스포츠를 접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몸과 마음이 한창 성장해야 할 나이에 책상에만 앉아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다) 스포츠를 통해 단결과 협동을 배웁니다.

▲ 호주 틴데일 학교(Tyndale School) 학생들의 교내 체육활동 장면

호주 시드니 근교에 위치한 틴데일 학교(Tyndale School) 곳곳에는 체육활동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었다. 운동장 한 곳을 여러개의 종목으로 나눠쓰는 우리나라 현실과 달리 이곳은 잔디구장, 육상트랙, 농구코트, 실내체육관 등 운동장만 10곳이 넘었다. 학생들은 각기 전용구장을 활용, 축구·럭비·농구·배구·넷볼 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를 즐겼다.

이 학교는 초·중·고가 포함된 12학년 과정에 유치원까지 포함된 통합학교로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다민족 국가인 호주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돼 학생들의 국적도 20여 종류에 달한다. 이처럼 연령과 국적이 다양한 학생들이 모인 곳이지만, 이 학교는 학생들 간 불협화음이 없기로 유명하다. 교내 폭력이 존재하지 않고, '왕따'라는 단어조차 이들에겐 낯선 단어로 인식돼 있다.

교사들은 가장 큰 배경으로 학교스포츠를 꼽았다. 레베카 딜런(Rebecca Dillon·38·여) 교사는 "교내 체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단결과 협동심을 배우며 다른 학교와의 운동 경기도 주기적으로 열려 학생들이 팀워크를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된다. 운동을 많이 하다보니 건강은 기본이다"고 했다.

호주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학교체육과 스포츠클럽을 연계 운영해 왔다. 국가 주도의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일 뿐 아니라 개개인의 비만을 떨어뜨리는 등 '인성'과 '건강'의 두 측면에서 모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다민족·다문화 사회에서 야기되는 학생들 간 문제를 학교스포츠를 통해 풀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점차 다문화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호주 교육 당국은 주당 3시간을 체육시간으로 운영토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일선 학교에서는 일주일이 아닌 하루에 3시간 가량 체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틴데일 학교의 경우 매일 등교와 동시에 체육활동이 이뤄진다. 학생들은 등교시 교실이 아닌 운동장에 집결, 스트레칭 등의 기초 체조를 실시한다. 일부는 가벼운 게임을 즐기기도 한다. 이렇게 20~30분간 오전 체육활동을 마친 뒤에야 학생들은 교실로 들어가 정규수업에 임한다.

웬디 드 브룸(Wendy de Vroom·53·여)교사는 "학생들은 매주 화요일 다른 학교와의 운동 시합에 대비해 점심시간이나 방과후 또는 주말에도 따로 모여서 연습을 한다"며 "인종·국적·나이·성별 모든 게 다른 아이들이 스포츠로 하나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특히 본인들이 즐겁게 임하는 모습에 교사로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라) ASC의 호주 스포츠의 정신(Backing Australia 's sporting ability - a more active Australia)

(1) 공명 정대 (Fairness)

스포츠 정신에 따라 규칙을 지키며, 어떤 경우라도 불공정한 이익을 쫓거나 불명예스러운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

(2) 존중 (Respect)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과 팀을 위엄과 배려로 대하고 존중하며 스포츠에 사용되는 자원과 기구들을 소중히 다룬다.

(3) 책임감 (responsibility)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항상 긍정적인 모델이자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안전 (Safety)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이며 다른 사람의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도 충고해 주어야 한다.

- 우리 호주인은 우리의 스포츠 능력과 스포츠인으로서의 명성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 우리 호주인은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본보기가 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어떤 수준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든 공명정대, 존중, 책임감, 안전에 근거하여 활동하기를 기대한다.
- 이를 통해 동점심, 결단력, 정직, 충직함, 신뢰를 키우기를 바란다.
- 성취감, 즐거움, 우정, 협동심, 기회, 팀워크, 복리를 얻기를 바란다.

2) 노인 생활체육에 주력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신체적인 활동이 건강에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고 보고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건강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지역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 통계청 및 각종 웹사이트에서 찾은 자료에 따르면 호주는 현재 인구의 약 15% 정도가 65세 이상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주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14%이며 2026년에는 약 20%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주 정부는 노약자, 장애인 및 가정 복지부가 주관하는 연중 행사인 시니어 위크는 지역사회 노인들의 역할과 공헌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행사로 승화시켜 가고 있다. 노약자, 장애인 및 가정 복지부는 지역사회, 문화 기관, 스포츠 기관, 영리 조직과 파트너십을 통해 주 전체에 걸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각종 공연, 콘서트, 게임, 체육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행사는 무료, 혹은 할인된 노인요금으로 참가할 수 있다. 2008년 개최된 50번째 시니어위크 행사에서는 700여개의 이벤트에 25만 명의 노인들이 참석하였다. 주 정부는 노인들이 활동적이고 건강한 은퇴를 즐기도록 장려하기 위해 1992년 시니어 카드를 도입했다. 이 사업은 개인의 자산이나 수입과 상관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시니어 카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뉴사우스웨일즈주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성인으로 한 주에 20시간 이하의 직업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메이크어무브 (50세 이상의 사람들을 위한 체육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2008년 시드니 서부지역 건강 서비스에서 만든 체육활동 디렉터리), SHARE(지역사회와 단체에 지도자를 파견하고 개인별 맞춤 수업), Active over 50 등 공인된 저가의 안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미숙, 김선정(2012). 노인의 여가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 한국과 호주 노인 비교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7(1), 739-748.

박재우, 한상호(2011). 미국, 호주, 영국의 엘리트운동 선수들을 위한 경력개발 및 진로전환 지원프로그램 비교 연구. 체육과학연구, 22(1), 1739-1754.

<http://cafe.daum.net/aucaptain/Ip80/11?q>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

<http://studyinaustralia.tistory.com/>

<http://www.studyinaustralia.gov.au/korea/after-graduation>

2014년 전국(소년)체전 유공자 공무 국외연수 개인별 보고서

<제목 차례>

-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호주 연수를 다녀와서 (전주생명과학고 교사 정OO) 31
- 생활체육이 활성화된 나라! 호주 (이리여자고등학교 교사 박OO) 33
- 기존시설의 활용도가 높은 호주(시드니)의 체육 (군산중앙여고 교사 김OO) 36
- 호주 국외연수를 통해 우리나라 체육교육의 발전방향 (전주남초등학교 교사 김OO) 38
- 호주의 교육과 체육환경 (군산산북중학교 교사 김OO) 40
- 체력 마음 정신 (군산동원중학교 교사 정OO) 42
- 우수 체육 국가 호주를 돌아보며 (전주기전중학교 교사 김OO) 44
- 체육인프라 구축이 우수한 나라! 호주 (군산나포초등학교 교사 김OO) 45
-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한다 (정읍동초등학교 교사 김OO) 47
- 호주 연수를 다녀와서 (이리중학교 교사 채OO) 49
- 호주의 생활체육시설을 둘러보고 (전주문정초등학교 교사 박OO) 51
- 호주 연수를 마무리하며 (전주성심여자중학교 교사 양OO) 52
- 기회가 많은 나라 호주 연수를 다녀와서 (전라북도교육청 장학사 이OO) 54
- 호주의 교육제도 (전라북도교육청 장학사 강OO) 57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호주 연수를 다녀와서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교사 정OO

긴장과 설렘으로 무척이나 기대가 되었던 6일의 일정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와 보니 더욱이 소중했던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동남아 쪽 여행은 해마다 연수나 사적인 여행을 통해 다녀왔으나 호주여행은 처음이어서 나에게겐 의미 있는 연수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깨우치게 해주었던 좋았던 ‘선택된 6일간의 전국체전 유공자 국외연수’ 정말로 의미가 있었던 연수였기에 함께 하지 못했던 다른 교육 동지들에게 미안함마저 앞서는 연수였습니다.

잠시 그 때의 감성으로 돌아가 좋았던 시간을 떠올리면서, 스스로에게 채찍질하는 심정으로 소감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연수 방문지에 대한 사전 정보나 지식을 알고 가는 것이 연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여행일 때는 더욱 그러하다는 사실을 새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주의 경우에 가는 곳에 대하여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책자나 정보 등을 알아보고 갔으면 가이드의 유익한 설명이 더욱 의미 있게 체계적으로 다가올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진들을 정리하다 보니 머릿속이 뒤죽박죽 기억은 나는 데 구체적으로 장소가 떠오르지 않아서 애를 먹었습니다. 인터넷도 검색해 보고 관련 책들도 뒤져보고 하면서 철저한 사전지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각 보다 초라한 시드니공항에 아침에 도착하여 숙소도 들르지 않고 버스를 타고 약2시간쯤 달려 호주의 바다 풍경과는 전혀 색다른 느낌을 주는 또 하나의 시드니 보물 ‘블루마운틴’이 있다. 호주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이 블루마운틴은 해발 1000m의 고지로 비교적 완만한 노년기의 지형을 이루고 있다. 블루마운틴 관광은 정상에서 시작된다. 첫날 시작된 비와 안개로 인하여 볼 수가 없어서 아쉬움을 뒤로한 채 연수물 사진으로만 충족해야했다.

이곳에는 ‘유칼립투스’라는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다. 유칼립투스 나무의 수액에는 알코올 성분이 많아 나무에서 내뿜는 유액이 공기 속으로 증발되어 산화되면 푸른빛을 띠어 산 전체가 푸르게 보이는 현상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이 나무의 수액은 살균효과가 있어 방향제로도 많이 사용된다. 특히 여행에 지친 사람들에게 샘솟는 기운을 넣어주는 것도 바로 유칼립투스의 유액에서 품어내는 신선한 공기가 있기 때문이다.

‘하버브리지’는 1920년대와 30년대에 불어 닥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10년간의 공사기간에 걸쳐 530m의 거대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1932년에 완성한 다리이다. 83년이 되었는데도 보수공사도 하지 않는 아주 튼튼한 철각다리이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 아름다운 건축물들과 시설들이 아름다운 자연풍경과 함께 이곳 사람들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풍요와 여유, 자유와 낭만, 그리고 평화가 자연과 함께 존재하는 이곳 시드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

이곳에는 ‘유칼립투스’라는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다. 유칼립투스 나무의 수액에는 알코올 성

분이 많아 나무에서 내뿜는 유액이 공기 속으로 증발되어 산화되면 푸른빛을 띠어 산 전체가 푸르게 보이는 현상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이 나무의 수액은 살균효과가 있어 방향제로도 많이 사용된다. 특히 여행에 지친 사람들에게 샘솟는 기운을 넣어주는 것도 바로 유칼립투스 유액에서 품어내는 신선한 공기가 있기 때문이다. 세계 3대 미항중의 하나인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는 세계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랜드마크 역할로 시드니 아니 호주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인상 깊게 남아 있다.

세계여행을 꿈꾸는 여러 사람들이 꼭 한번 찾고 싶은 곳 중의 하나가 시드니가 아닌가 싶다. 시드니 하버에서 바라보는 시드니 도심의 모습은 파란 하늘과 파란 바다 사이에 건물의 오묘한 조화를 통해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자연과 어우러진 최고의 조형물을 창조한 듯 보였다. 깨끗함과 정교함 그리고 전체를 생각하는 건물들의 조화는 얼마나 고심을 하고 도시를 만들었을까 하는 이방인의 생각을 이끌었고 아담하고 정리된 도로와 상점들의 간판은 서로 앞 다투어 내세우는 화려한 우리의 그것과는 사뭇 대조적이었다. 또한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도심의 거리에서도 앞서자의 속도에 맞추어 바쁘더라도 추월하거나 빨리 가라 채근하지 않고 조용히 뒤따라 걸어주는 그들의 배려와 인내심에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다.

국외 연수 후에 많은 참가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면서 교육에 헌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되어 돌아온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리웠고, 우리의 음식들이 생각났습니다.

끝으로 모두가 자신의 일처럼 협력해 주시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모두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체육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연수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생활체육이 활성화 된 나라 호주!

이리여자고등학교 교사 박OO

일선 현장에서 체육수업을 전담하며, 학생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며 학교와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바, 호주(오스트레일리아)의 연수에 참여하게 되어 무척 설렘이었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보다 인구수는 절반이 되는 2,350만 정도이나 면적은 무려 78배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로 광물과 금속이 발달된 나라이다. 호주국민들은 여유와 배려, 주어진 시간과 활동에 전념하는 모습이 뚜렷하였다. 아울러 시내 전 경들은 아름다운 풍경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크게 느끼고 있었다. 10시간 가까이 되는 비행을 하여 도착하고 보니 우리나라와 기후에 다른 여름 날씨가 되어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젊은 시절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흘렀다 갑자기 벅차오르는 가슴과 찡한 눈시울을 뒤로하고 연수일정에 첫 발을 내딛었다 생활체육 시설을 견학하러 이동하는 중에도 항상 느끼는 생각은 자율적인 참여에 천혜조건과 잘 갖춰진 생활체육 시설에 놀라움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1. MLC SCHOOL

호주의 사립 여자학교로서 학교내 수영장, 트레이닝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건물 높이가 몇 층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단층으로 되어 있어 학생들이 쉽게 이동하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학년별로 세분화된 교육과정과 11명의 Head Teacher를 구성하여 교육과정운영을 관리하며 적어도 7명의 전문가를 함께 하여야 하며 그중에 1명은 반드시 체육교사가 구성이 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수능시험 과 같은 시험은 학생들이 50개의 과목 중에서 본인의 선택으로 시험을 치루게 되며, 전체 학생 들은 약 66% 정도는 체육관련 과목을 선택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로 갈수록 체육수업이 시수를 줄이고 입시위주의 교과목을 선호하는 부분과 매우 대조적인 부분이였다.

7-10학년은 팀 운동이 필수 이며 11-12학년은 팀 운동이 선택으로 바뀌며, 자기 건강관리 및 교우관계 개선과 같은 부분에 중점을 두게 된다고 한다. 학교마다 실내체육관은 모두 보유 하고 있으며 수영장과 같이 전문 체육시설의 경우 주변의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체육전문 학교는 7개가 있으며 전문운동선수의 수업결손에 대한 질문에 우리나라와 별반 다를 바 없는 1단계 담당교사 멘토링 2단계 보충수업 3단계 on-line을 통한 학생스스로 수업 하는 추 후 지도였지만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지켜야 한다는 당사자의 인식의 차이는 존재하는 듯 하는 듯하였다. 우리나라의 운동부 아이들 및 부모들은 시험의 결과가 우선시 되는 사정으로 공부는 뒷전이고 수업일수와 수업 내용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시험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수업과 엘리트체육의 중요성을 동등하게 생각하며 공부하는 호주의 선수들이 어렸을 때부터 몸에 자연스럽게 익혔기 때문에 이들은 어쩌면 운동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2. 호주 체육시설

호주 등은 생활체육이 선진화된 대표적인 국가이면서 비교적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이며 그 중 해양성 기후 때문에 춥지 않고 바다가 함께 상존하는 도시라 온갖 레저스포츠가 지역사회 내에서 가능한 도시였다.

골드코스트 시에는 크고 작은 생활체육공원 많다는 가이드설명과 여행을 도중 여러 곳이 눈에 띄고, 지역주민의 안락한 휴식과 레저스포츠 활동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다운타운 내에 자리한 큰공원 멀리서 바라보면 다운타운의 반이 공원으로 보여 질 정도로 매우 큰 공원으로 밴쿠버 시민의 허파역할 및 생활체육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파3골프장, 퍼팅경기장, 여러곳의 테니스장, 론볼링장(잔디볼링), 그곳의 크리켓필드, 실외수영장, 물놀이 공간(일명 워터파크), 숲속을 가르며 수많은 조깅코스, 하이킹, 인라인, 자전거코스 등의 생활체육 시설이 갖춰져 있어 가족여가활동 및 체육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환상적인 공원화된 사회체육시설이다.

더욱이 공원둘레의 대부분이 섬처럼 바닷가에 둘러 싸여 있어 아름답기가 말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이들 공원 안이나 둘레에는 카페나 음식점등의 상업시설이 많이 없고 체육공원 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작은 매점 있어 깨끗하고 안락한 공원 환경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또한 공원 어딜 가나 자연과 잘 어울리는 체육시설들을 볼 수 있었고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부족함이 없어보였다. 도시 전체가 체육공원이고 수목원이었으며 아름다운 식물원과 같은 느낌까지 줬다

따라서 아름다운 바다와 산 깨끗하게 정돈된 도로와 마을, 곳곳마다 푸르른 잔디와 숲으로 가꾸어진 생활체육공원을 확보하고 있는 밴쿠버는 그야말로 레저스포츠의 천국이었다. 밴쿠버 시민들은 스스로를 느리다고 생각하는데 느리지만 그 과정과 결과 속에 모두들 행복해 보였다. 늘 더 빨리, 더 많이, 그래서 서로 정신없이 몰려가듯 떠밀려가는 한국 사람들에게 캐나다 밴쿠버는 느림의 여유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장소였다

3. 돌이켜보며

호주의 첫 느낌은 학교가 굉장히 넓다는 점과 마음껏 운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 곳곳엔 잔디가 깔려있고, 육상트랙도 있었다. 마치 체육전문학교를 방불케 했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학교가 시설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가이드는 “재정 여건이 좋은 다른 사립학교에 비하면 시설 여건은 다소 떨어지는 편”이라고 했다. 이곳 학생들은 각기 전용구장을 활용해 스포츠를 즐기고 있었다. 축구와 농구는 물론,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럭비와 넷볼 등 종목도 다양했다.

우리는 점심시간이 되면 운동장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 순식간에 밥을 먹고 운동장으로 달려 나간다. 금세 몰려든 학생들로 흠먼지 뒤덮인 축구장에는 수많은 축구공들이 왔다갔다 했던 기억들이 문득 떠올라 왠지 모를 씁쓸함과 부러움이 교차했다.

호주는 지난 2004년부터 학교체육과 스포츠클럽을 연계 운영하고 있는 국가이다. 국가 주도의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일 뿐 아니라 개개인의 비만을 떨어뜨리는 등

‘인성’과‘건강’의 두 측면에서 모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호주 교육당국은 주당 3시간을 체육시간으로 운영토록 의무화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일선 학교에서는 일주일이 아닌 하루에 3시간가량 체육활동 실시하고 있다. Tyndale school 경우 매일 등교와 동시에 체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등교와 동시에 교실이 아닌 운동장에 모여 스트레칭 등의 기초체조를 실시하거나 가벼운 게임을 즐기기도 한다. 이렇게 20~30분 오전 체육활동을 마친 뒤에야 교실로 들어가 정규수업에 임한다. 교사는 “교내 체육활동을 통해 학생들 대부분은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되며 비만율도 감소할거라 생각에 체육활동에 임하는 것 같다. 운동을 통해 협동과 단결 등의 팀워크가 형성되고 학생들은 어린 나이에 자연스럽게 단체생활과 사회성을 습득하게 하는 것 같았다.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은 체육 교과목을 중요 시 하지 않고 영어나 수학 등 주요과목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니 지금 어려운 시대에 인성과 사회성을 자연스럽게 습득시킬 수 있는 교과가 체육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깊이 하면서 이번 호주연수 에서도 깨달았다. “체육활동은 평생활동이며,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단기적이며, 단순하게 운동에 그치지 않고 전략과 작전 등을 통해 승부에서 상대를 이기는 법을 배운다. 이는 건강뿐 아니라 지능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된다. 실제 운동을 잘 하는 친구들이 학업성적도 우수한 편”이고, 학교 공동활동에세도 협동적이며 학교폭력없이 생활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체육수업이라고 자부 할 수 있다.

기존시설의 활용도가 높은 호주(시드니)의 체육

군산중앙여고 교사 김OO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어서 늦여름의 호주, 시드니로의 일정이 많이 설렘과 여름계절의 준비여서 가방의 부피가 크게 부담되지 않았던 것도 출발 전 일단 마음에 들었다. 2015년 1월18일 전 북교육청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여유있게 도착했다고 생각했는데 짐 부치는데 어찌나 사람이 많던지 한시간정도 소요된 데다 입국수속 또한 많은 사람들로 또 기다려야 해서 시간이 부족할 지경이었다. 다행히 저녁비행기라서 10여 시간의 긴 비행시간동안 수면을 취하면서 가다보니 어느덧 시드니 국제공항에 도착해있었다. 출국때 고생을 해서 입국 때도 그러면 어찌나 걱정했는데 웬걸 호주에서 가장 큰 비행장이라는데도 인천공항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규모와 간소한 절차로 순식간에 공항을 빠져 나와 오히려 어안이 병병했다.

공항을 나오자마자 짐도 풀기 전 바로 시드니 시내에 있는 올림픽파크 시설을 돌아보았다. 방학 중이라 가족중심사회인 호주인들이 상당수 휴가를 떠나 육상트랙이 있는 스타디움이 잠겨있었지만 관리인의 허락을 얻어 안을 돌아볼 수 있었다. 규모가 생각보다 단출해서 규모나 시설 면에선 우리나라가 오히려 한수 위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평소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호주국민이라면 고교졸업까지 호주축구와 크리켓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들어 국민스포츠와 단체종목을 통한 여러가지 이점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체력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부러운 생각이 들었다.

1월20일에는 시드니 시내북판에 자리잡은 호주의 수영영웅인 이안 소프의 이름을 딴, 생활체육시설인 이안소프-아쿠아틱센터를 돌아봤다. 인도와 바로 접해있고 투명한 마감을 한 시설이라서 밖에서도 수영을 즐기는 체육관안을 들여다 볼 수 있어 놀랐다.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해 뒤 벤치에 앉듯 편하게 앉아 물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안에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밖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얘기들을 하는 모습이 생소했지만 보기 좋았다.

1월21일, PCYC청소년 생활체육시설과 일반생활체육시설인 맥과리 실내 아이스링크를 견학하였다. PCYC청소년시설은 경찰과 연계를 맺고 학교생활에 조금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방과 후 복싱, 스트리트댄스, 기구운동, 농구 등을 통하여 긍정적 에너지를 품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을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었다. 견학 중에도 자유롭게 어린학생부터 제법 큰 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이 활동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맥과리 실내 아이스링크는 넓은 국토에 띄엄띄엄 사람들이 살다보니 한곳에 편의시설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커다란 쇼핑센터 안에 아이스링크가 있어서 보호자와 아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코치가 있어 링크안에 초보자를 위한 바를 잡고 겨우 움직이는 수준의 학생부터 뒤로 능숙하게 타는 수준의 상급자까지, 어린아이부터 흰수염 날리며 조심스럽게 스케이팅하는 초로의 할아버지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즐기는 모습을 웃음 지으며 한참 지켜보았다.

1월22일 오전에 호주최초의 체육고인 Westfield Sport High School을 견학하였는데, 방학이라서 학생들은 볼 수 없었고 - 우리나라의 체육고생들은 방학중에도 학교안팎에서 다양한 훈련을 하는데 - 학교 관리인의 허락을 받아 학교시설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의외로 넓고 열악한

시설과 바닥에 붙어 있는 무수히 많은 껌자국을 보고 상당히 놀랐다. 선진국임에도 지금까지 둘러본 공립학교들의 시설에 조금 실망스러웠는데 학문과 스포츠에 대한 명성을 갖고 있다. 그것도 뛰어난 스포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국내 및 국제적 관심과 인정을 받고 있다고해 솔직히 놀라웠다. 오후에 간 MLC School은 사립으로 굉장한 명문의 여고였는데, 햇볕이 물온도 및 채광까지 밝게 유지되도록 한 실내수영장과 수구를 할 수 있는 공간 및 아담하고 실속있게 설계된 실내체육관까지 있었다. 학교 체육시설은 일반인에게도 열려있어 우리가 갔을 때도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여학생들이 실내체육관에서 발레수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돌아본 몇몇 공립학교에선 볼 수 없었던 시설과 규모가 비싼 수업료를 내야하는 사립고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와 다른 교육환경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때마침 호주 멜보른에서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어서 (21일, 대 아람에미레이트전) 작파하고 멜보른에 가 응원하면 어떠냐고 물었더니 가이드가 웃으면서 호주는 이웃도시가 보통 1,000km이상 떨어져 있다고.....시드니에서 멜보른도 거의 13시간정도 차로 이동해야 한다고 해 모두 실소했다.

건축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대표적 건축물로 시드니항에 위치한 오페라 하우스를 멀리서 또 가까이서 둘러보고 안에도 살짝 가보고했는데 그 규모와 아름다운 디자인에 감탄했다. 언젠가 그 안에서 공연물을 감상할 기회가 주어질는지...또한 조금은 느리지만 모든 도로공사든 건물이든 거의 보수공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견고하게 짓는다는 것이 부럽게 느껴졌다.

우리나라의 74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에 비해 2천4백만명정도 된다는 적은인구를 가진 나라인 지라 시내가 온통 큰 정원 같다는 생각을 했다. 시드니 중심권외엔 나무들보다 높이 올라오는 건물들이 드물어 숙소나 시드니시내를 전망할 수 있는 곳에서의 전경이 우리나라와 많이 달랐다.

이젠 우리나라도 선진대열에 있다보니 웬만한 시설이나 규모는 어느나라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다. 다만 그 활용도가 학생들이 학습 뿐 아니라 다양한 운동으로 체력과 긍정적 에너지를 분출하도록 할 수 있다면 세계 그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뒤질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호주 국외연수를 통해 느낀 우리나라 체육교육의 발전방향

전주남초등학교 교사 김OO

호주의 학교 체육정책과 체육교육과정, 학교와 생활체육, 그리고 스포츠 인프라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국외연수를 다녀오면서 새로운 체육교육 정책과 체육 프로그램을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체육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첫째, 호주의 체육교육과정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호주의 주당 체육수업시수는 주당 2~3시간으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두 나라에서는 정규 교육과정 속의 부족한 체육 활동 시간을 보완하기 위해 정규 수업시간 시작 전이나 점심시간 등 많은 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육활동을 시행하고 있었다. 아울러 한국과는 달리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체육이 대학 진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교 학업 성취도 평가과목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어 체육의 위상이 다른 교과목에 전혀 뒤쳐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우리나라도 입시제도의 변화를 통해 스포츠 활동이 진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 저하되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을 향상시키고 체육교과의 위상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둘째, 방과 후 체육활동(스포츠클럽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현재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운영 방식으로 스포츠클럽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호주에서는 학교가 주관이 되어 방과 후 스포츠클럽이나 다른 기타 클럽활동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학생들은 정규 수업을 마친 후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좋아하는 클럽에 가입을 하여 스포츠 활동을 즐기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지역의 특색과 문화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스포츠를 주로 수업의 주제와 종목으로 정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정규수업 내 체육 활동이 지역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설 및 재정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활동 프로그램의 공유 등 가능한 다양한 면에서 체육활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스포츠클럽활동은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이를 보완하여 차후 학교 스포츠클럽과 지역 사회의 스포츠클럽이 긴밀한 협조관계를 갖는 상태에서 체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함께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 호주에서는 일반인들이 언제든지 쉽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최고의 시설들을 수시로 개방하고 있다. 시설 때문에 스포츠 활동이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호주 스포츠 정책의 기본적인 마인드이다. 뉴질랜드 또한 스포츠 국가로서 세계적인 수준의 스포츠 시설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호주의 Aussie Sport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양질의 체육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평생 스포츠 참가를 습관화하며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정부와 체육단체 그리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청소년 체육 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학교 내의 체육시설과 학교 밖의 체육시설간의 인프라 구축을 우선으로

하고 청소년들이 양질의 체육활동을 경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 할 것이다.

넷째, 학교 체육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체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분에의 투자와 정책 마련이 아닌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체육 인프라 구성 등 모든 부분이 연계되어 체육 정책이 입안·실행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또한 재정적,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국외연수를 함께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조OO 장학관님, 이OO장학사님, 강OO 장학사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자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하시는 모든 학교의 감독교사, 코치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는 체육 지도교사가 되겠습니다.

호주의 교육과 체육환경

군산산북중학교 교사 김OO

2014 전국(소년)체육대회 유공자 공무 국외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5년 1월 18일부터 23일까지 4박 6일에 걸쳐 호주를 다녀오게 되었다. 한국의 추운 날씨를 뒤로하고 부푼 마음을 안고 전라북도교육청에 집결하여 인천국제공항을 출발, 호주 시드니로 향했다. 호주의 시차는 한국보다 2시간 빠른 관계로 약 10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이른 아침 시드니 공항에 도착하여 첫날 일정을 시작하였다.

공무 국외연수와 관련하여 방문한 첫 번째 방문지는 2000년 제27회 시드니 올림픽이 열린 올림픽스타디움 및 부대시설이었다. 시드니 올림픽스타디움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 홈부쉬 지역에 위치한 다목적경기장으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위해 6억 9천만 오스트레일리아 달러가 투입되어 1999년 3월 완공되었으며, 2003년 럭비 월드컵이 개최된 곳으로 버려진 땅, 쓰레기 매립지 위에 건설한 올림픽 스타디움으로 자연광을 최대한 살리면서 관중석에는 햇빛이 들지 않도록 건설하였으며, 천정에는 스테인리스 홈통을 설치해 빗물을 재활용토록 하는 등 시드니올림픽은 환경친화적인 올림픽으로 치룬 대표적인 환경올림픽이었다고 한다. 또한 호주는 전세계적으로 광활한 면적의 영토를 가지고 있기에 올림픽스타디움은 그 규모면에서도 가히 굉장하였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PCYC(POLICE CITIZENS YOUTH CLUBS)라는 사회체육시설을 방문하였는데 PCYC는 경찰-시민이 연계하여 설립, 운영되는 시설로 농구, 배드민턴 등 각종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사회 및 학교체육과의 연계를 통해 일반 시민 및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장소였다. 더불어 국외연수 기간 방문한 사회체육시설에는 Ian Thorpe aquatic centre 와 Ice Rink가 있었다.

Ian Thorpe aquatic centre는 올림픽에서만 금메달 다섯 개를 딴 호주출신 올림픽 최다 금메달리스트인 Ian Thorpe의 업적을 기리며 건립한 수영장으로, 시드니 교외, 뉴사우스 웨일즈에 위치하고 있으며, 3개의 수영장과 휘트니스 센터 및 기타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시드니시와 뉴사우스 웨일즈의 YMCA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령층의 구미에 맞춘 다양한 수준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호주 시드니의 4계절 따뜻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문한 Ice Rink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수익금을 아이스링크 운영에 사용하며, 우수한 빙질과 호주에서 가장 우수한 스케이트 스쿨 및 최고의 코치진을 자랑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국외연수기간 동안 방문한 학교로는 MLC School, Westfields Sports High School이 있었다. MLC School은 시드니 대학교에 여성이 입학할 수 있게 된지 불과 5년 후인 1886년에 개교한 여성을 위한 학교로, New South Wales에서 여성교육에 혁신을 불어온 학교이다. MLC School은 호주 사회에 여성이 뛰어난 공헌을 할 수 있으며, 역사에 주목할만한 위업을 남길 수 있다는 신념하에 여성을 교육해왔다. 또한, 모든 학생은 자신만의 재능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 하에 학생들이 자신만의 색을 찾을 수 있게 폭넓은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부터 12학년까지의 소녀를 교육하는 학교로 체육환경 면에서 있어서도 사립학교로써, 수영장 및 체조장, 잔디운동장, 테

니스장 등 시설 및 규모면에서도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Westfields Sports High School은 시드니 남서쪽에 위치한 Westfields Sports High School은 1963년에 처음으로 종합 남녀공학 고등학교로 학생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1992년에 호주 최초의 체육고등학교가 되었다. 지역 내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14개의 독보적인 체육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받고 있다. Westfields Sports High School은 현재까지 270명 이상의 학생들이 체육분야에서 호주를 대표해왔고, 호주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체육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2013년에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의 "Sport and Youth Trophy"를 보유하고 있던 학교이다. 방문에 앞서 호주를 대표하는 체육고등학교라 큰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그 기대감과는 다르게 시설이나 규모면에서 약간의 실망감을 갖게 되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4박 6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호주의 학교 및 사회체육을 방문하면서 우리나라보다 선진화된 체육의 모습을 느끼기에는 빠듯한 일정이었다. 하지만, 전국(소년)체육대회 유공교사를 배려해 이런 기회를 준 전라북도교육청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희망하는 사항이 있다면 지금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전라북도 엘리트체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지도자(감독교사 및 운동부지도자)들에게 체육분야에서 우리나라보다 나은 국가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되기보다는 더욱더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체력, 마음, 정신

군산동원중학교 교사 정00

텔레비전 뉴스로만 듣고 나오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았던 공무원 국외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교육 공무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새로운 학교 문화와 교육제도를 바로 보고 듣고 배우고 오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꼬리로 행운이 들어온다는 캥거루 꼬리도 꼭 잡아 봐야지 하는 설레는 마음이 10시간 넘는 비행시간도 지루하지 않게 했습니다.

처음 도착한 공항은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차창 너머로 보이는 꽃과 나무들의 크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섬김의 대상이 되었을 법한 크기의 나무들이었습니다. 도심 곳곳에 자연스럽게 도시와 학교와 하나가 되어 멋진 자태를 뽐내며 서있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져 가는 아주까리의 모습에서 천연기념물인 따오기가 공원의 흔한 비둘기 같이 돌아다니는 모습에서 우리는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1. 방문일정

우리의 호주 교육기관 방문 순서는 생활체육 시설인 둘째 날은 PCYC를 방문하였으며 셋째 날에는 이안소프트 아쿠아틱 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넷째 날은 MLC 고등학교에 방문했으며 다섯째 날은 생활체육시설-맥과리 및 캄시 실내 아이스링크를 방문하여 호주의 교육과정과 학교 및 사회체육 문화 사례를 보고 우리나라의 학교스포츠 문화를 어떻게 사회체육 문화로 연계를 시켜야 하는지 열심히 질문하고 토론하며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2. 호주와 한국의 체육교육

한국의 체육 교육과정은 1-9학년까지 연계하여 동일한 틀 안에서 구성한 반면 호주의 경우는 학급별로 나누어 독립된 문서로 만든 점이 다르지만 체육교과의 목적과 목표는 학교 급별, 학년군별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은 닮아 있습니다. 호주의 초등학교 내용구성으로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8개의 내용 영역은 활동적인 생활양식, 댄스, 게임과 스포츠, 성장과 발달, 체조, 대인관계, 개인적인 건강생활, 안전생활이고, 5가지의 기능은 의사소통, 의사결정, 상호작용, 움직임, 문제 해결이며 이러한 초등교육의 내용이 중학교에서는 개인과 관계, 움직임 기술과 수행, 개인 및 공동체의 건강, 평생 체육활동의 4가지가 더 포함 이 되고 고등학교에서는 핵심 영역에서 60% 수강하고 40%는 응급처치, 체력활동, 야외활동 등에서 2개 영역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시설은 한국보다 모든 점으로 열악했지만 초등에서는 세분화된 교육을 중등에서는 초등에서 배운 내용을 중학교 특성에 맞게 내용의 변화 또는 사회와 융합시켜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체육이 사회체육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게 만든 점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체육 교육과정도 자기 계발, 건강 및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영적 건강을 포함한 건강에 관한 모든 면을 다루고 있으며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가능하도록 학생의 지식과 이해, 가치와 태도 발달, 약물복용, 체력, 운동, 아동보호, 등양 등과 같이 청소년들의 건강필수 요소에 관한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 요소를 갖추었으며 한국의 2009년 개정된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학년군제의 편성은 호주 교육과정과 유사한 점이 있어 보였으며 이번 연수를 통하여 한국의 교육제도가 호주에 뒤 처지 않는 교육제도임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다짐

아 좀 더 마음을 열고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보고 올 것을 하는 아쉬움 속에 호주보다 한국이 시설이나 모든 교육여건은 더 좋은데 언제나 시설 탓만 하고 교구 탓만 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호주처럼 생활로 운동을 연결시키지 못한 점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토요일학교스포츠를 어떻게 활성화 시키고 매주 2번 실시되는 학교스포츠를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실시해야 할지 많은 마음의 숙제를 안고 왔습니다.

열악한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호주인들의 모습 속에서 체육교사인 나부터 학교로 돌아가면 학생들을 더 사랑해야지 더 많이 같이 뛰어야지 체육교구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좀 더 많이 학생들이 접하게 하여 자율적인 학생들의 움직임 이끌어 내어 학교체육이 건강한 체력을 가진 학생,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학생, 건전한 정신을 가진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많은 체육교사들을 제치고 받은 연수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노력할 것이며 국가에서 좀 더 많은 교사들에게 세상의 교육현장 탐방의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잡으면 행운이 온다는 캥거루 꼬리는 잡지 못했지만 한국에 있는 모든 교사들에게 행운이 오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캥거루 혁 띠 하나 사가지고 갑니다.

우수 체육 국가 호주를 돌아보며

전주기전중학교 교사 김OO

2015년 1월 18일부터 23일까지 2014 전국(소년)체육대회 유공자 공무 국외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어 호주를 다녀오게 되었다. 이번 일정은 인천공항을 출발 호주 시드니에서 4박을 하면서 시드니 시내 및 인근의 사회체육시설, 학교를 탐방하고 귀국하는 일정이었다.

국외연수기간 동안 탐방한 학교로는 호주의 명문 사립학교인 MLC학교와 우리나라의 체육고등학교격인 Westfields Sports High School이 있었다.

MLC학교는 호주의 명문 사립학교로 1886년에 개교한 여성을 위한 학교이다. 모든 학생은 자신만의 재능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 하에 학생들이 자신만의 색을 찾을 수 있게 폭넓은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부터 12학년까지의 소녀를 교육한다. 커리큘럼으로는 Junior school (5학년 이하 여아), Middle Years (6학년~8학년 : 10~14세), Senior School Years (9~12학년)으로 나뉘며, 아쿠아틱센터, 돌봄프로그램, 다이빙, 체육관, 악기배우기, 테니스, 연기학습, 영화제작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여러 가지 교육적, 체육적, 환경적, 시설적인 면에서 호주를 대표하는 학교라해도 손색이 없을만큼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체육고등학교격인 Westfields Sports High School은 시드니 남서쪽에 위치한 Westfields Sports High School은 1963년에 처음으로 종합 남녀공학 고등학교로 학생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1992년에 호주 최초의 체육고등학교가 되었다. 국외연수기간 동안 호주의 학교들이 방학이 되어 학교 관련 관계자가 학생들의 체육활동 모습들을 보지 못한 점이 아쉽게 느껴진다.

국외연수기간 동안 탐방한 사회체육시설에는 PCYC(POLICE CITIZENS YOUTH CLUBS), 맥과리 실내 아이스링크, 이안소프 아쿠아틱센터가 있다. 각각의 사회체육시설들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PCYC는 경찰-시민이 연계하여 운영되는 사회체육시설로 각종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방문 당시 담당 경찰과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사회적 체육시설이 널리 보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았다.

맥과리 실내 아이스링크는 호주의 연중 따뜻한 날씨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형 쇼핑몰과 연계하여 건설된 아이스링크로써, 방문 당시 어린 학생들의 단체 스케이팅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이안소프 아쿠아틱센터는 수영부분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다수 획득한 호주의 수영영웅 이안소프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수영장으로 수영장과 더불어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번 유공자 공무 국외연수를 통해 엘리트체육을 통해 이런 혜택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학생선수를 지도하는 감독교사로서...

이러한 감사와 행복감으로 일선 학교 현장에 돌아가면 우리 학생, 학생선수들을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면서 열심히 지도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하나 더 희망하는 점이 있다면,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학생선수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많은 체육관련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다양한 탐방의 기회가 꼭 더 많이 주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해 본다.

체육인프라 구축이 우수한 나라! 호주

나포초등학교 교사 김OO

3시간의 버스, 3시간의 대기, 10시간의 비행 드디어 호주에 도착하였다. 도착하자마자 찾은 곳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 열렸던 시드니 종합경기장이었다. 나라의 규모에 맞게 웅장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메인 스타디움에 놀랐다. 우리나라의 78배의 면적에 어울리게 넓은 평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여유롭게 위치하고 있었다. 그중 안내원의 안내로 축구 연습장에 들어갔는데 다른 점이 눈에 띄었다. 바로 관중석이 우리와 달랐다. 보통 우리의 축구경기장이라고 하면 관중석에 의자만 놓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여기에는 의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면 중 한 면은 의자가 아닌 잔디가 깔려있었다. 이유를 알아보니 잔디밭으로 관중석을 만들어 가족과 함께 자리를 잡고 경기를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다. 우리는 보통 가족과 함께 스포츠를 관람하러 가는 문화가 조성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호주는 좋아하는 사람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나들이의 개념으로 체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가 있다는 점이 부러웠다.

PCYC 청소년 생활 체육 시설은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시설이었다. 시설이 훌륭하지는 않았으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수요를 충족시키는 시설이었다. 초등학생부터 60세까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배드민턴, 복싱, 댄스, 농구, 헬스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요일별로 운영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우리도 사회체육이 활성화되어 학교 강당을 개방하여 탁구, 배드민턴, 배구 등의 실내운동 주말이면 야구, 축구 등의 야외운동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것은 대부분이 성인들을 위한 장소이다. 하지만 PCYC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과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스포츠의 생활화에 많은 도움을 주는 시설이라고 느꼈다.

생활 체육 시설로 맥과리 실내 아이스링크와 이안소프 아쿠아틱센터 견학을 하였다. 맥과리 실내 아이스링크장은 우리의 롯데월드에서 있는 롯데 아이스링크장과 비슷하였다. 시내의 큰 쇼핑몰 안에 위치한 아이스링크장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안전모와 장갑을 사용하지 않고 즐기는 모습에 조금은 당황하였고 안전문제가 걱정이 되었으나 느긋한 호주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고 다치지 않고 스케이트를 즐기는 모습이였다.

호주의 수영영웅 이안소프를 기념하는 이안소프 아쿠아틱센터는 수영을 좋아하고 개방적인 호주 문화를 보여주는 시설이었다. 시내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유리로 되어 있어 지나가는 길에도 수영하는 모습을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설계된 실내 수영장이었다. 사람들이 수영하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수영을 접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수영시설이었다.

학교는 호주의 명문 사립학교 MLC학교와 체육고등학교인 Westfildle Sport High School를 방문하였다. Westfildle Sport High School은 우리의 체육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로 엘리트 체육을 맡은 학교였다. 호주가 휴가 기간이라서 학생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못본 것이 아쉽지만 넓게 펼친 잔디구장과 하키장이 눈에 띄었다. 호주는 하키와 럭비를 좋아하고 즐기는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운동시설들이 잘 준비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휴가 기간이어도 엘리트 체육학생들은 꾸준히 연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주는 여가생활을 좀 더 즐기면서 운동을 하도록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호주의 명문 사립학교 MLC학교는 1년 등록금이 3~4천만원 정도 하는 학교이다. 그만큼 공립

학교의 시설보다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수영장과 넓은 잔디밭의 구장들을 보유하고 학생들의 생활체육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특히 수영으로 유명하여 중국의 여러 학교와 협약을 맺어 이곳으로 전지훈련을 온다고 하였다. 이안소프 같은 훌륭한 선수가 나온 뒷면에는 훌륭한 시설들이 뒷받침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헬스장은 일반인들에게 제한적으로 개방하여 닫힌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취지를 살리는 모습도 보았다.

이렇게 4박 6일간의 호주 연수를 마치면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어디에나 넓게 펼쳐진 잔디공원이었다. 아이들은 푸른 잔디밭에서 마음껏 공을 차면서 체력을 키우고, 성인들은 이 곳에서 크리켓, 골프, 테니스 등을 즐기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모습이 부러울 뿐이었다. 시설과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지원하는 호주 정부가 아니면 이런 잔디밭이 유지가 될 수 없을 것 같았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 투자를 통해 자연스럽게 체육 활성화를 시킨다면 그 안에서 제2의 박지성, 박태환, 최경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익한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장학관님과 장학사님께 감사드리며 이 경험을 잊지 않고 교육현장에서 더 알차고 힘차게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에너지로 삼아야겠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한다

정읍동초등학교 교사 김OO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알다시피, 호주의 역사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보잘 것 없을 정도로 그 역사가 짧다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호주의 역사라는 것은 원주민들이 터를 잡고 살았던 역사를 제외한, 영국 본토로부터 추방되었던 죄수들과 그 죄수들을 관리하던 사람들의 삶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죄수의 유배지라는 형벌의 땅이 오늘날 세계인들이 앞 다투어 배우려는 모범도시의 전형이 되었다는 점에서 호주 연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행정이 단순한 개발의 시대를 뛰어넘어 디자인을 접목하는 전환의 시기에 일찍이 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한 호주 도시들의 선진행정은 우리로서는 반드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연수단이 중점적으로 방문한 시드니는 호주의 발전상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상징적인 도시였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광장에서 북극성이 아닌 남십자성을 바라보면서 푸른 파도와 함께 어울린 비틀거리는 수많은 젊은 열기 속에서도 질서가 가미된 문화가 공존하고, 광장을 마주한 하버 브릿지라는 다리도 예술이 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인종·국경 초월 단결·협동심 배워

다민족·다문화 학생 갈등 교내 스포츠로 풀어가

다른 학교와 주기적 경기 통해 '팀워크' 다지기도

"스포츠를 통해 단결과 협동을 배웁니다."

1월 21일 우린 시드니의 최고의 명문 사립학교로서 1886년에 처음 학생을 받기 시작한 MLC school을 방문하였다. 운동장 한 곳을 여러개의 종목으로 나눠쓰는 우리나라 현실과 달리 이곳은 잔디구장, 육상트랙, 농구코트, 실내체육관 등 운동장만 10곳이 넘었다. 학생들은 각기 전용구장을 활용, 축구·럭비·농구·배구·넷볼 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를 즐긴다고 한다. 이 학교는 초·중·고가 포함된 12학년 과정에 유치원까지 포함된 통합학교로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라고 한다.

다민족 국가인 호주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돼 학생들의 국적도 20여 종류에 달한다. 이처럼 연령과 국적이 다양한 학생들이 모인 곳이지만, 이 학교는 학생들 간 불협화음이 없기로 유명하다고 하며, 교내 폭력이 존재하지 않고, '왕따'라는 단어조차 이들에겐 낯선 단어로 인식되고 있다고 한다.

교사들은 가장 큰 배경으로 학교스포츠를 꼽았다. 가이드 말로는 "교내 체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단결과 협동심을 배우며 다른 학교와의 운동 경기도 주기적으로 열려 학생들이 팀워크를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된다.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 건강은 기본이다"고 했다.

호주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학교체육과 스포츠클럽을 연계 운영해 왔다. 국가 주도의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일 뿐 아니라 개개인의 비만을 떨어뜨리는 등 '인성'과 '건강'의 두 측면에서 모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했다.

특히 다민족·다문화 사회에서 야기되는 학생들간 문제를 학교스포츠를 통해 풀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점차 다문화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호주 교육 당국은 주당 3시간을 체육시간으로 운영토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일선 학교에서는 일주일이 아닌 하루에 3시간 가량 체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MLC school의 경우 매일 등교와 동시에 체육활동이 이뤄진다. 학생들은 등교시 교실이 아닌 운동장에 집결, 스트레칭 등의 기초 체조를 실시한다.

일부는 가벼운 게임을 즐기기도 한다. 이렇게 20~30분간 오전 체육활동을 마친 뒤에야 학생들은 교실로 들어가 정규수업에 임한다고 한다.

가이드는 "학생들은 매주 화요일 다른 학교와의 운동 시합에 대비해 점심시간이나 방과후 또는 주말에도 따로 모여서 연습을 한다"며 "인종·국적·나이·성별 모든 게 다른 아이들이 스포츠로 하나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특히 본인들이 즐겁게 임하는 모습에 교사들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단 숨에 보고 오기에는 벅찬 일정이었지만, 최대한 많이 보고 배우기 위한 노력과 열정을 느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인간중심의 정책과 교육실현을 목표로 하는 호주의 문화, 사회를 고루 접할 수 있는 뜻 깊은 연수에 참여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글을 마무리 한다.

호주 연수를 다녀와서

이리중학교 교사 채OO

매서운 추위가 한창인 '15년 1월 18일에 '14년 전국 체육대회 유공자 공무 국외연수를 통하여 호주를 가게 되었다. 출발하기 전에 호주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가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에 간단히 알아보았다. 일단 면적부터 769만 2208km²으로 상당히 압도적이었고 이 남반구에 위치한 방대한 영토의 면적의 기후는 열대에서 온대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북부지역의 80%, 서부 호주 지역의 40%는 열대 기후에 속해있고 그 나머지 지역은 온화한 온대기후에 속해 있으며 호주의 여름은 12월에서 2월까지, 가을은 3월에서 5월 겨울은 6월에서 8월까지, 그리고 봄은 9월에서 11월까지 이다. 우리가 출발하는 1월의 계절은 여름, 한국의 매서운 추위에 움츠려있던 몸을 포근하게 녹이고 올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되었다. 수도는 캔버라,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하고, 정치는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약을 받는 정치체제인 입헌군주제다. 1인당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은 1만 9900\$(2003)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많은 양이다. (현지인의 말로는 알바를 할 때 아무리 못 받아도 한 시간에 3만원은 받는다고 한다.) 호주에 대한 사전 조사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 보니 호주에 대해 알기 전보다 훨씬 기대가 되고 설렘다.

출발 당일 우린 인천공항에서 수속을 마친 후 19시 05분에 출발 하였다. 도착 도시 시드니까지 10시간의 장거리 비행을 해야 했지만 알찬 연수를 위해 미리 에너지를 보충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했다.

07시 10분 시드니에 도착하여 현지 가이드 미팅을 가졌고 우린 유네스코 지정 자연유산인 블루마운틴으로 이동하였다. 길이 544m의 케이블카에 탑승하여 블루마운틴의 장관을 감상할 때는 약 1,000m대의 산맥을 뒤덮은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증발된 유액이 햇빛에 어우러져 빛어내는 푸른 안개현상을 보고 왜 이 산의 이름이 블루마운틴인지 알게 되었다. 블루마운틴의 웅장함을 뒤로하고 우린 시드니로 귀환하여 석식 후 호텔에서 휴식을 취했다.

다음날 시차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우린 포트스테판으로 이동하였다. 세계 3대 와인 산지로 유명한 호주 와인 농장을 방문하여 와인 시음을 한 후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을 법한 평범한 바다에 야생 돌고래들이 나타나 움직이고 있는 배 옆으로 함께 수영해 오는데 자연에 살고 있는 돌고래의 모습은 흔치 않은 경험하기에 호주의 바다는 정말이지 아름다웠다. 동절기 (7~8월쯤)때는 운이 좋으면 야생돌고래가 20마리나 나타날 때도 있다고 한다. 우린 다시 시드니로 귀환하여 호텔에서 한식을 먹고 휴식을 취했다.

1월 21일 우린 시드니의 최고의 명문 여자 사립 중, 고등학교로서 1886년에 처음 학생을 받기 시작한 MLC SCHOOL을 방문하였다. MLC학교는 NSW주의 2009년 건축 우수상을 수상한 학교답게 아름다운 학교였다. 특히 교실의 모든 공간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교실과 교실 사이에 벽이 없고, 벽면에 고정된 칠판도 없고 필요한 경우 이동식 칠판을 이용하여 학습 활동에

활용하고, 모든 건물의 벽면이 유리를 사용하여 충분한 자연 채광이 이루어져 상당히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교육환경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 학교를 떠올리면 일단 학교에 들어가기 전 철조망이 쳐져있는 담장부터 떠오르는데 상당히 부끄러웠으며 MLC학교와 같은 시범학교가 우리나라에도 도입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월 22일 5번에 걸쳐 호주에 골든 메달을 안겨 준 수영 챔피언 Ian Thorpe의 이름을 딴 곳으로 유명한 Ian Thorpe aquatic centre를 방문하였다. 시드니시와 뉴사우스 웨일즈의 YMCA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수영레슨, 개인훈련, 그룹 피트니스, 레크리에이션 수영, 단체 프로그램, 학교 프로그램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였다. 이곳을 보고 익산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인 중앙 체육공원이 떠올랐다. 그리고 가장 기대가 컸던 Westfield Sport High School (체육특성화 고등학교)는 호주 최고의 스포츠 학교이며, 스포츠 및 예술에 개인 우수성의 달성에 필수적인 교육 기회와 양질의 자원을 제공해 주는 학교이며 1963년 개교한 이 학교는 국내 및 국제 관심과 인정을 받고 있는 학교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우리나라 체육특성화 고등학교도 절대 뒤지지 않는 어찌면 다방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내 명소(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리지, 미시즈매쿼리포인트 등)를 관광하면서 인구에 비해 땅의 면적이 커 고층 건물이 별로 없고 영화에서만 보던 주택단지를 보면서 정말 멋진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인생의 겨울을 아름다운 나라 호주에서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1월 23일 09시 아직도 설레는 가슴을 안고 비행기를 탔다. 17시 40분 인천 도착 후 22시에 전북 교육청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이번 호주 연수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호주의 생활체육시설을 둘러보고

전주문정초등학교 교사 박OO

2014년 전국 체육대회 유공자 공무 국외연수 차 2015년 1월 18일부터 23일 까지 호주를 방문하게 되었다. 떠나기 전에는 식사문제라던가 날씨가 덥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호주행 비행기에 탑승했지만 모처럼만에 여행이라서 그런지 마음은 약간 들떠있었던 것 같았다. 그러나 첫째날과 둘째날은 날씨도 그렇게 덥지 않았고 먹는것도 크게 어려움이 없었으며 쓰레기 등이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되어 있었고 특히, 생활체육시설이 도시 주택가 여러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등 이번 호주연수는 나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고 뜻 깊은 여행이 된 것 같다.

첫째날에는 버스에서 호주의 기후와 음식,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를 받으며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둘째날에는 10시간이 넘는 시간을 기내에서 보내고 호주 시드니공항에 도착하였다. 듣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날씨가 조금 쌀쌀했지만 호주 사람들은 여름옷을 입고 공항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여행에 대한 피로를 풀 시간도 없이 간단한 세수를 한 후 우리는 블루마운틴으로 향했다. 과거의 석탄 탄광레일을 개조하여 수직 하강하는 궤도열차가 재밌었으며 광활한 블루마운틴 절벽사이를 연결하는 스카이웨이는 조금 무섭게 느껴졌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우리가 간 날이 안개가 너무 깊게 끼어 있어서 세자매봉을 완벽하게 볼 수 없었던 점이었지만 그것 이외에는 매우 만족스러운 곳이었다. 블루마운틴을 본 후 호주의 체육시설을 둘러보았는데 모든 체육시설에는 잔디가 잘 가꾸어져 있었으며 시드니 올림픽 경기장은 그 위용이 정말 대단했다. 여러 체육시설을 돌아본 후 석식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밤 늦게 까지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다. 셋째날부터는 호주의 여러 체육시설과 관광지를 둘러보며 그들의 선진화된 체육시설 및 시스템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고 알게 되었다.

특히 pycy라는 사회체육시설에서 호주인들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심을 많이 엿볼수 있었다. 이곳은 경찰청과 자선복지단체가 함께 운영하며 학교체육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점은 사회 소외계층이나 범죄우려학생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해 체육으로 끌어들이고 그들에게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다. 다양한 시설 및 다양한 강사를 확보하여 그 아이들이 쉽게 사회 어두운 곳으로 빠져 들지 않고 재밌게 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감명을 받았던 곳이다.

그 이후에 일정에서는 호주 사립여학교를 다녀왔는데 그전에 다녀왔던 호주의 공립학교 시설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규모와 시스템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한해 등록금 몇천만원 할 정도로 호주에서 일정정도의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녀를 보내는 곳이기도 해서인지 무척 시설이 깨끗하고 좋아보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공교육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가 훨씬 안정적이고 수준높은 교육을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 좋게 보였다. 빈부격차에 의해 교육의 질이 달라진다는 점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국이라는 호주의 조금 서글픈 이면이기도 했다.

이번 호주의 사회체육 시설을 둘러보면서 많은것을 느꼈다. 천연자원의 부호국이자 1차 산업이 주가 되는 호주에서 사회체육시설이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으며 이용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게 해준 이번 일정으로부터 많은 생각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자부한다.

호주 연수를 마무리 하며...

성심여자중학교 교사 양OO

2015년 을미년 새해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우리는 꿈의 대륙 호주를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탔다. 이번 국외연수는 선진 문화(엘리트체육과 사회체육)를 직접 보고, 느끼고, 배우기 위해 10시간의 긴 비행여정을 견디며 호주로 날아갔다. 호주는 이미 10년 전 겨울에 아내와 함께 배낭을 메고 한 달 가량 문화체험을 한 곳이기도 하고, 지금은 호주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었다.

연수기간 중 긴밀한 협조를 해주신 장학관님, 장학사님 및 모든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연수 일정은 호주의 매력적인 미항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7위에 선정된 시드니 등을 중심으로 시찰하였다.

첫째날과 둘째날은 날씨도 그렇게 덥지 않았고 먹는 것도 크게 어려움이 없었으며 쓰레기 등이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되어 있었고 특히, 생활체육시설이 도시 주택가 여러 곳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등 이번 호주연수는 나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고 뜻 깊은 여행이 된 것 같았다.

첫째날에는 버스에서 호주의 기후와 음식,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를 받으며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둘째날에는 10시간이 넘는 시간을 기내에서 보내고 호주 시드니공항에 도착하였다. 듣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날씨가 조금 쌀쌀했지만 호주 사람들은 여름옷을 입고 공항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여행에 대한 피로를 풀 시간도 없이 간단한 세수를 한 후 우리는 블루마운틴으로 향했다. 과거의 석탄 탄광레일을 개조하여 수직 하강하는 궤도열차가 재밌었으며 광활한 블루마운틴 절벽사이를 연결하는 스카이웨이는 조금 무섭게 느껴졌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우리가 간 날이 안개가 너무 깊게 끼어 있어서 세자매봉을 완벽하게 볼 수 없었던 점이었지만 그것 이외에는 매우 만족스러운 곳이었다. 블루마운틴을 본 후 호주의 체육시설을 둘러보았는데 모든 체육시설에는 잔디가 잘 가꾸어져 있었으며 시드니 올림픽 경기장은 그 위용이 정말 대단했다. 여러 체육시설을 돌아본 후 석식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밤늦게 까지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다. 셋째날부터는 호주의 여러 체육시설과 관광지를 둘러보며 그들의 선진화된 체육시설 및 시스템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고 알게 되었다.

특히 pcyo라는 사회체육시설에서 호주인들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심을 많이 엿볼 수 있었다. 이곳은 경찰청과 자선복지단체가 함께 운영하며 학교체육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점은 사회 소외계층이나 범죄우려학생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해 체육으로 끌어들이고 그들에게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다. 다양한 시설 및 다양한 강사를 확보하여 그 아이들이 쉽게 사회 어두운 곳으로 빠져 들지 않고 재밌게 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감명을 받았던 곳이다.

그 이후에 일정에서는 호주 사립여학교를 다녀왔는데 그전에 다녀왔던 호주의 공립학교 시설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규모와 시스템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한해 등록금 몇천만원 할 정도로 호주에서 일정정도의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녀를 보내는 곳이기도 해서인지 무척 시설이 깨끗하고 좋아보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공교육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가 훨씬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을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 좋게 보였다. 빈부격차에 의해 교육의 질이 달라진다는 점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국이라는 호주의 조금 서글픈 이면이기도 했다.

여행이란 바쁘고, 답답하고, 단조로운 일상성을 탈피하기 위한 것이다. 어렵고 힘들며 지루할 때, 남태평양의 푸른 바다와 끝없이 푸른 초원, 초록물빛의 신비한 호수들, 수천미터 절벽에서 쏟아지는 물줄기, 반디동굴 천장에 박혀 있는 영롱한 빛깔의 보석들을 내 가슴속에서 다시 꺼내 보면서 미소를 지을 것이다. 4박 6일간의 짧은 여정동안 함께 즐거움을 같이 우리 연수팀 모두와 이번 연수를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해준 도교육청 조OO장학관님, 이OO장학사님, 대한투어 유승호사장님, 가이드 여러분들, 안전을 책임진 조종사, 운전기사님들께 마음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여행 소감을 맺는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회가 많은 나라 호주 연수를 다녀와서...

전라북도교육청 장학사 이OO

들어가며

2014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유공자 공무 국외연수를 2015년 1월 18일부터 2015년 1월 23일 까지 초등교사 4명, 중학교 교사 5명, 고등학교 교사 3명, 전문직 3명 총 15명으로 구성하여 호주 시드니에 다녀왔다. 금 번 연수는 호주의 학교교육과정(체육교육과정 포함)과 사회체육 시설 운영 실태의 우수사례 및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학교체육의 발전 방안을 찾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이번 일정은 인천에서 호주시드니까지 비행이동을 시작으로 사회체육시설인 시드니 올림픽 경기장, PCYC(POLICE CITIZENS YOUTH CLUBS), Ian Thorpe aquatic centre, Ice Rink와 교육기관인 MCL School, Westfields Sports High School을 방문하였다. 또한 시드니 문화체험을 통하여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연수지인 호주의 교육제도와 기간 중에 다녀왔던 교육기관과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호주의 교육제도

호주의 학제는 12학년으로 이루어졌다. 단,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분리되어 있지는 않는 것이 우리와의 차이점이다. 한편 호주의 의무교육은 10학년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TAFE(호주의 전문대학 과정)과 Private College와 같은 전문 직업 훈련 교육기관으로 진학을 하거나, 계속해서 11, 12학년을 마치고 대학으로 진학을 한다. 최근에는 많은 학생들이 11학년 이상으로 진학을 선택하고 있는 추세이다. 호주의 교육과정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교육의 기본적인 체계는 호주 연방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그러나 각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은 주정부의 교육부 소관이며 주 정부의 교육부에 등록되어 커리큘럼, 시설, 건물상태, 교사들의 자질 등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호주의 한 학년은 일반적으로 4학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기와 학기 사이에 2-5주 정도의 방학이 있다. 학년은 1,2월에 시작하여 12월에 끝나며 방학은 여름방학(12월-1월말)이 가장 길다. 그리고 체육시간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주당 최소 2시간씩 배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 시드니 올림픽 경기장

2000년 9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시드니 올림픽은 올림픽 자체로서만이 아니라 환경 친화적인 올림픽 단지를 조성, 이용한 환경올림픽으로도 유명하다. 시드니 중심가에서 14km 떨어진 '홈부시(Homebush Bay)'만에 건설된 올림픽 파크는 쓰레기 매립장을 재개발한 곳이다. 조직위는 환경 오염지역인 홈부시만에 1억3천700만 호주달러를 투입해 최첨단 스포츠 콤플렉스인 올림픽 파크를 건설했다. 이곳의 경기장들은 공기의 흐름까지 고려해 스탠드 설계를 했을 만큼 환경보호에 주력해 건설, '그린 올림픽' 모토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

역사상 가장 큰 야외 경기장으로 꼽히는 올림픽 스타디움은 대회 이후에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변식으로 설계됐다.

○ PCYC(POLICE CITIZENS YOUTH CLUBS)

처음 시작은 1937년도에 경찰 남자 클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호주 전국적으로 주 단위 와 지역 단위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운동 장소 및 각종 활동을 할수 있도록 체육관 장소 제공을 해주고 있다. PCYC는 주 내에서 제일 큰 청소년 단체이기도 하다. 총 멤버는 30,000명과 120명의 경찰 그리고 2,500명의 자원 봉사자 와 4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농구, 배드민턴, 헬스 등 각종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 Ian Thorpe aquatic centre

5번에 걸쳐 호주에 골든메달을 안겨 준 수영 챔피언 Ian Thorpe의 이름을 딴 곳이다. 이 건물의 특이한 파도의 물결모양의 외관은 이 건물의 설계를 위해 벌인 디자인 경쟁에서 당당히 채택된 건축가 Harry Seidler가 설계하였으며, 2006년 사망한 그가 감독 하에 완성된 마지막 건물 중 하나이다. 이안 소프 아쿠아틱 & 피트니스 센터는 시드니 교외, 뉴 사우스 웨일즈에 위치하고 있으며, 3개의 수영장 과 피트니스 센터 및 기타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이 센터는 시드니시 와 뉴 사우스 웨일즈의 YMCA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령층의 구미에 맞춘 다양한 수준 운동 프로그램 (수영 레슨, 개인 훈련, 그룹 피트니스, 레크레이션 수영, 단체(팀) 프로그램, 학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 MCL School

시드니 최고의 명문 여자 사립 중, 고등학교로서 1886년에 처음 학생을 받기 시작했으며 커리큘럼은 4개 과정, 총 12년의 교육과정으로 나뉘어진다. 학교 내 시설로는 실내 수영장, 테니스코트, 실내 체육관, 음악실 등등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고 MLC 중요 전통중 하나인 반 대항 SPORTS는 각반을 대표하는 학생들이 수영, 육상, 크로스컨트리 등 여러 종목에서 경쟁하며 체육활동을 한다. 그리고 학교대항은 사립학교 협의회가 주최하는 T ball, net ball, 축구, 크리켓, 농구, 수구, 배구 등의 종목 경기가 매주토요일 오전에 진행된다. 그 외 각종 캠프와 카누, 서핑 등의 out door 교육이 있다.

○ Westfields Sports High School

호주 최초의 체육고등학교이며, 강한 동기부여로 스포츠 및 예술 전문 분야에 모든 학생들이 능력이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한다. 다양한 학생복지 및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많은 관심과 인정을 받고 있는 학교이다. 주요 육성 종목은 육상, 야구, 크리켓, 골프, 체조, 럭비, 하키, 수영, 테니스 등이다.

나가며

전국(소년)체육대회 유공자 국외연수를 위해 계획부터 추진, 최종정리까지의 과정이 다소 힘들었지만 매우 만족스러운 연수였다. 본 연수가 선진학교체육정책과 시설탐방을 통해 우리 학교체육정책 수립 및 체육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지만 우리가 방문했던 시기인 1월은 방학기간으로 학교방문 시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참관할 수 없었던 것이 매우 아쉬운 점은 있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체육정책 추진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체육교사들과 함께 이국의 교육과 문화를 보고 느끼며 공감할 수 있었으며 전북학교체육 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논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금번 연수를 통해 학교체육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해보면 첫째, 호주는 지역체육시설, 스포츠클럽, 국토 내 많은 잔디공원 등 언제든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고 학교와 지역사회시설 및 스포츠클럽과의 연계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 우리도 지역마다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학생들은 물론이요, 지역주민들도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운동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호주의 엘리트 선수 육성은 지역사회체육시설과 스포츠클럽을 통해 특기를 신장하고 전문적으로 육성되고 있어 이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육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시스템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엘리트선수 육성 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선수육성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호주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에서든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하는 모습을 접할 수 있었다. 이는 어릴 때 부터 학교교육을 통한 실천행동이라 생각된다. 최근 비만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현실을 볼 때 우리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학교의 역할을 강조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호주의 교육제도

전라북도교육청 장학사 강OO

1. 들어가며

처음 떠나는 공무국외연수를 위해 호주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계획하고 준비하였다. 우선 호주의 교육제도를 알아보기로 하고 사전 조사를 위한 인터넷 조사를 시작하였다.

호주의 대략적인 지형 및 환경에 대해 조사하고 지역의 교육제도 등을 조사하여 준비하고 호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장거리 비행이라 몸이 피곤했지만 처음 방문하는 호주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다. 시드니 공항에 도착해서 한국과는 다른 날씨에 외국에 와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여름이었지만 흐린 날씨로 인해 조금 쌀쌀한 기온 이었다. 그리고 연수 일정을 위해 출발하면서 버스창밖으로 본 호주의 경치는 넓은 잔디와 유칼립투스도 둘러 쌓인 숲들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2. 호주의 교육제도

오스트레일리아의 교육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정부가 관장하고 있어 각 주마다 학교제도와 교육행정에 차이가 있다.

호주의 학제는 초등학교(Primary) 6년, 중고등학교(Secondary) 6년, 대학교(Tertiary) 3~6년으로 나누어진다. 보통 중고등학교(Secondary)는 High School 이라고 칭하는데, 중등 과정 4년(7~10학년), 고등 과정 2년(11~12학년)으로 나누어지며, 중등 과정을 마친 후 대학 진학에 뜻이 없거나 취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바로 졸업하게 되며, 대학을 제외한 공립 교육과정 12년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만 고등 과정에 진학하며, 11~12학년을 다니면서 대학 입시 준비를 한다. 대부분 호주인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학년을 마친 뒤 취업을 위해 졸업한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아시아 인구 증가에 따른 교육 경쟁이 심해져서 그런지 대부분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다고 한다.

중등 과정(10학년)까지만 마친 학생들은 대부분 직업 전선에 뛰어들기 위해 기술 전문 학교(TAFE;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에 진학하는데, TAFE는 약 200개가 있으며, 대부분 국가가 운영하는 공립이다. 한편 호주의 학제는 매년 2월에 시작되어 11월에 마치게 되며, 대학교는 2학기, 중고등학교는 4학기 제도로 운영된다.

호주의 75%저도의 학생들이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각 주 정부 교육부에서 직접 관리하며 거주지 위주로 학교를 배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는 학교마다 시설이나 교육 방침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공립학교 보다는 교실당 학생수가 적고 역사나 전통을 강조하는 학교들이 많다. 또한 남학교나 여학교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이 종교 재단이 운영하는 학교가 많은데 천주교, 성공회 학교가 많다.

호주의 중, 고등학교는 심도 있는 학과목과 다양한 예, 체능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7,8학년은 필수과목(영어, 수학, 인문 사회과학, 체육)을 배우고 9학년 이상은 필수과목+선택과목(외국어, 경제, 미술, 음악, 연극, 컴퓨터, 지리, 역사)을 배우게 된다. 의무 교육인 10학년을 수료한 후 11-12학년의 2년간의 성적과 고등학교 졸업 자격시험 성적으로 대학 진학이 결정된다.

3. 나가며

호주에서 방문한 교육과 체육관련 시설들은 규모가 크거나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지만 지역마다 가까운 곳에서 즐겁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잘 만들어져 있었다. 풍부한 자원과 국토를 바탕으로 엘리트 체육 보다는 국민들을 위한 보편적인 생활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연수기간 동안 다양한 체험을 바탕으로 호주의 우수한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변환하여 우리나라의 체육교육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부 록

1. 사진으로 보는 국외체험연수

• 1일

인천-시드니 (약10시간 소요)

10시간의 힘든 비행이었지만 호주의 선진화된 체육시설과 교육환경들을 보기 위해, 누구 하나도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 2일 (블루마운틴)

- 09:00~11:00 시드니 올림픽 경기장 체육시설 견학

- 11:00~12:00 엘리트 체육시설에 대한 협의회

- 13:00~15:00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관람

- 16:00~18:00 Parramata 사회체육시설 견학



• 3일 (포스트테판)

- 09:00~15:00 포트스테판(사막투어, 유람선) 관람

- 16:00~18:00 PCYC 청소년 체육시설 견학

- 19:00~20:00 King George V Recreation Centre 견학





• 4일 (시드니)

- 09:00~11:00 Westfield Sport High School 견학

- 11:00~12:00 Macquarie 아이스링크장 시설 견학

- 13:00~16:00 시드니 동부(본다이비치, 더들리페이지, 캅팩) 관람

- 17:00~18:00 MLC School 견학



• 5일 (시드니)

- 09:00~12:00 Ian Thorpe Aquatic Centre 견학

- 13:00~17:00 시드니 시내관광 (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리지, 매쿼리포인트)



• 6일

시드니-인천(약 10시간 소요)

호주에서 보고 배웠던 선진 교육환경과 체육시설의 효과적인 활용 등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고, 이를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할 수 있었던 유익한 국외연수였다.



2. 공무 국외연수 설문지

『제95회 전국체전 및 제43회 전국소년체전 유공자
공무 국외연수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인성건강과 이OO 장학사입니다.

금년 전국동계체전 및 전국소년체전 유공자 공무 국외연수(이후 ‘공무 국외연수’)에 참여하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연수결과 반성 및 계획 수립을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연수 전반에 관한 의견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자 : 전라북도교육청인성건강과

담당자 : 이 O O

전 화 : 063-239-3369

E-mail : lyg711@jbedu.kr

※ 해당학목에 √ 및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번호가 없는 경우,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1. 선생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급은?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교육전문직

3. 공무 국외연수 연수국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① 대단히 만족한다 ② 대체로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스럽다 ⑤ 대단히 불만족하다

4. 3번의 “④ 불만족스럽다 ⑤ 대단히 불만족하다”일 경우 희망하는 연수국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공무 국외연수 중 방문 기관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① 대단히 만족한다 ② 대체로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스럽다 ⑤ 대단히 불만족하다

6. 5번의 “④ 불만족스럽다 ⑤ 대단히 불만족하다”일 경우 희망하는 방문기관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7. 공무 국외연수 일정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① 대단히 만족한다 ② 대체로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스럽다 ⑤ 대단히 불만족하다

8. 7번의 “④ 불만족스럽다 ⑤ 대단히 불만족하다”일 경우 개선방향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9. 그 외 공무 국외연수 추진과 관련하여 권장사항 및 개선사항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95회 전국체전 및 제43회 전국소년체전 유공자 공무국외연수자 명단

순	조	내용	성명	임무	비고
1	1	호주 학교 체육교육과정 사례연구	정OO (전주생명과학고)	보고서 작성	조장
2		"	박OO (이리여고)	자료수집	
3		"	김OO (군산중앙여고)	사진촬영	
4		"	김OO (전주남초)	자료수집	
5	2	호주의 학교 및 사회체육 문화 사례연구	김OO (군산산북중)	보고서작성	조장
6		"	정OO (군산동원중)	자료수집	
7		"	김OO (전주기전중)	자료수집	
8		"	김OO (나포초)	사진촬영	
9	3	호주의 학교와 사회체육 연계 사례연구	김OO (정읍동초)	보고서작성	조장
10		"	채OO (이리중)	사진촬영	
11		"	박OO (전주문정초)	자료수집	
12		"	양OO (전주성심여중)	자료수집	
13	4	보고서 작성 및 일반화	강OO (도교육청)	보고서 종합	웹게시
14		"	이OO (도교육청)	보고서 정리	
15		보고서 작성 및 일반화(인솔팀장)	조OO (도교육청)	인솔팀장	

2014년 전국(소년)체전 유공자
공무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총 괄 : 인성건강과장 이00
지 도 : 체육예술담당장학관 조00
기 획 : 인성건강과 장학사 이00, 강00

2015년 2월 인쇄
2015년 2월 발행

발행처 : 전라북도교육청
